

07

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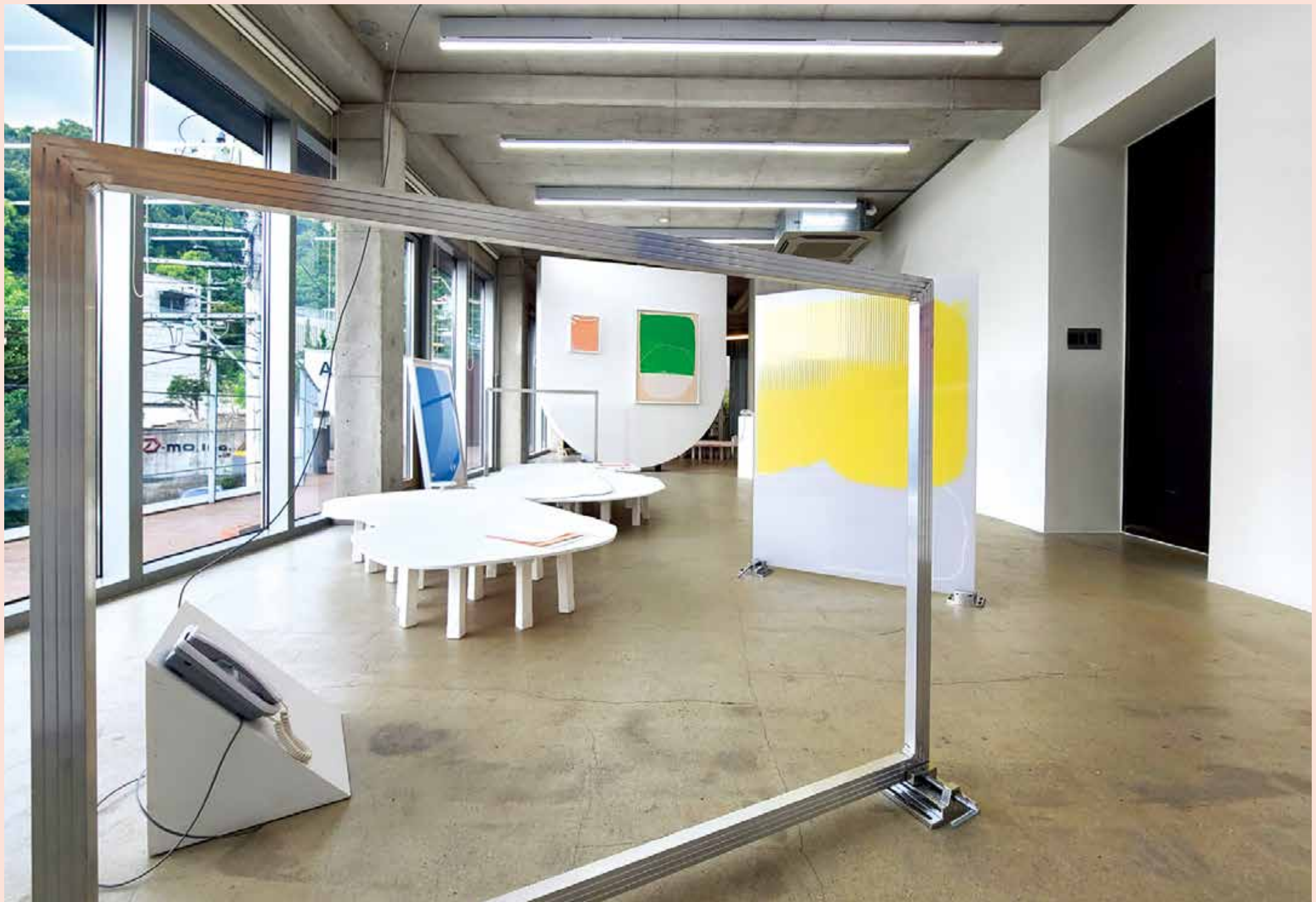
08

04

2023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 크리스 로 Chris Ro 7.6—8.4 2023	Observations	10	크리스 로	표면 아래의 소리들.
	Thoughts		Chris Ro	Thoughts On Laughter. Thoughts On Beauty.
		16	이성휘	표면 아래의 소리들.
			Sunghui Lee	Sound Under Surface.
	Fiction &	30	1장	침묵에 귀 기울이기. 침묵 듣기.
	Nonfiction		Chapter 1	Listening To Silence. Hearing Silence.
		40	2장	품절 이라는 이름의 현지 요리 주문하기.
			Chapter 2	Ordering A Local Dish Called Sold Out.
		50	3장	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14분 회의.
			Chapter 3	Fourteen Minute Meetings That Last For One Hour.
		62	4장	통닭 한 마리 주문하고 혼자 먹기.
			Chapter 4	Ordering Whole Chickens and Eating Them All By Myself.
		74	5장	곰과 호돌이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을 때.
			Chapter 5	When A Bear and Hodori Ate Garlic And Made People.
		82	6장	붉은 두부.
			Chapter 6	A Red Tofu.
		96	7장	내 남자 가슴에 드리워진 그림자.
Exhibition			Chapter 7	The Shadow Cast From My Man Boobs.
		114		공간
				Space
		146		CV
		156		크레딧
				Credits



Observations Thoughts

유머에 대한 단상.
 아름다움에 대한 단상.
 Thoughts On Laughter.
 Thoughts On Beauty.
 |
 크리스 로
 Chris Ro

아름다움과 유머. 아름다움 대 유머. 아름다움 / 유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머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머는 저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유머는 제게 특별한 손님이자 친구였습니다. 유머는 어떤 상황에서든 환영받는 단 하나의 친구였고, 유머가 있는 곳엔 언제나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유머와 비슷합니다. 제가 기억이란 걸 할 수 있던 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만들 때마다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이룩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동력이 되고 자극이 되는 형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를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형태 말입니다. 실패한 적이 더 많지만, 이 같은 습관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제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를 통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어떤 형태를 봄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제 경험 속에서 아름다움과 유머는, 서로 정반대의 개념으로 취급받기 일쑤인 듯 했습니다. 서로 밀어내는 자석처럼 두 개념은 결코 만나거나 합쳐질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항상 둘을 갈라놓는 것처럼 항상 분리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X와 Y, 1과 0, 북쪽과 남쪽처럼.

대학원을 다닐 때 저는 유머 감각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과 동료들에게서 자주 들었던 질문은 지금까지도 제게 주요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제 작업 안에 유머를 넣어볼 순 없을까요? 아름다움과 유머, 이 두 세계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문제는 여전히 제게 중요하고, 지금껏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늘 실패했었습니다. 두 개념을 결합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해 온 작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진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진중하고 다소 우울한, 유머를 위한 여지도 공간도 없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아직 제겐 어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가 살아오며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반추해 보면, 아름다우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의 예는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오리너구리(오르니토르힌쿠스 아나티누스)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서식하는, 여러 동물의 특징이 고루 발견되는 포유류인데, 다소 기이하지만 이 동물은 제게 아름답고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형태에 매료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아름다움과 유머를 모두 가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것의 예는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여태 기억에 남는 이상한 이론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종종

아름다운 사람은 유머러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은 덜 노력하며 살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머 감각이 덜 발달된 것이라고요. 아름다움 덕분에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술을 키울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모욕적일 수 있지만, 제가 가진 작은 데이터로 볼 때 이것이 때때로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저는 처음 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세계를 결합하려 노력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두 세계가 항상 저를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꼬리를 쫓는 개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를 고민하는 동안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유머는 선의에 뿌리를 내린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유머를 결합해 보려 한 제 첫 시도는 앞 문장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웃음'이라 이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리지 않는 웃음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코웃음 소리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크게 웃을 만큼은 유머러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간 이어 온 제 고민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저는 이번 전시가 적절한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나지 않는 웃음은 적절한 시작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요한 웃음은 난관을 마주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나만,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한 웃음 말입니다.

Beauty and laughter. Beauty versus laughter. Beauty / laughter. From my youth, I remember a constant and curious relationship with humor. It was a way of engaging with the world that felt natural for me. Laughter became a special guest or friend who would join me from time to time. And laughter was the one friend who was almost always welcome. Always a good thing when laughter came to town. Similarly, one could say the same things for beauty. Ever since I can remember, whenever I made things I would have this natural, almost ancient urge to try to find that special form. I would not be satisfied with just making something. I had to find a form that did things to

me. A form that would move me and in my mind, perhaps move other people as well. Although looking back, I was often far from successful, this habit or this mindset still possesses the process in anything I make. There has to be a way that we can experience the form. And that form must do something to us. But in my short time on this planet, I have found again and again that these two concepts, at least for me, have resided at complete opposite ends of a spectrum. Like magnetic poles that repel, they could never meet or come together. An invisible force would always divide them. Always separate. Always apart. X and Y. 1 and 0. North and south.

In graduate school, for whatever reason my humor then was alive and well. And I would often hear from both professors and colleagues a question that still haunts me to this day. Could there be a way for this humor to enter the visual work that I do? Is there a way to combine these two worlds? And this continues to haunt me to this day because I have never been able to figure this out. From what I have seen and attempted to do so far in my visual life, it has almost always failed. How can these two concepts actually come together? Most of the visual work that I did then, before and since has always had a tendency to be serious. More somber. More deliberate. There was no room, no space for humor. And to this day, I still have no answer for this. I have yet to unravel this.

But why can these two not get along? The basic data that I had been accumulating in my life had told me that there were very few examples of things that were both beautiful and humorous. In elementary school I did a research report on the duck-billed platypus(ornithorhynchus anatinus). An egg-laying mammal found in Australia that combines the features of many animals all in one. Peculiar. For me this animal was at once, both beautiful and humorous. I was enamored with its form. And yet this form, seemed so comical to me. Humorous. Ridiculous in some ways. It was that one time where both the form and the humor were harmoniously together, all at once. But besides this, I can rarely think of the things that possess both. A friend of mine in college told me a strange theory that still remains with me to this day. He would often tell me that beautiful people are not humorous. He had said their beauty had created for them an environment where they can make less effort in the world and still survive. And therefore, their humor, their personality,

things like this were less developed. Under developed. Their beauty allowed them to go through society without having to grow their interpersonal or social skills. I am sure this is insulting in many ways to some of the beautiful people in this world, but from the small data I have, I think this can sometimes be true. And if you consider the opposite end of this spectrum and think about all the funny people you know, have you ever met one who was handsome or beautiful? Again, perhaps insulting to all the funny people in this world, but in my database of humans I have met in my life so far, I could rarely think of a funny person who was both funny and beautiful. Rare, isolated and extremely hard to find, much like the aforementioned platypus.

The works in this exhibit are a first for me. A moment where I am trying to combine both worlds. But as I expected, it was very difficult. Impossible at times. It felt as if both worlds were pulling me at all times in one direction or another. I could never have them both. Like the dog who chases his tail, it seemed both endless and insurmountable at times. During my research for this exhibit, I had learned that humor is generated when an unexpected incident occurs from a core that is kind, gentle or harmless. Simply put,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from an unexpected source and nobody gets hurt during the process. I think this process can sum up this first round of explorations. And perhaps, therefore the name “silent laughter”. The results so far are probably more akin to the laughter that you cannot hear. The laughter that perhaps comes out as a nasal snuffle. Or a quick exhaling of air through the nostrils. It may not be funny enough to make you laugh out loud. But it may be enough for you to smile without smiling. Although there is much left to do in this research, I think this is an appropriate beginning. To smile without smiling seems like a logical place to start. When dealing with the impossible, perhaps laughing without laughing might be the only way forward. To laugh quietly. Just enough for you or perhaps somebody close by to hear. Silent laughter.

표면 아래의 소리들.
Sound Under Surface.
|
이성휘
Sunghui Lee

서피스(surfaces) 또는 표면. 크리스 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평면 작업들을 '서피스'로 분류한다. 그의 평면 작업들을 어떻게 칭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작가의 표현을 따르기로 하였다. 크리스 로의 서피스들은 유기체 같은 형상들로서 작업이 거듭될수록 땅에 심은 씨앗처럼 자라나 성장하여 변신하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한다. 또 대체로 장방형의 색면 레이어와 자유로운 곡선 드로잉이 몇 겹으로 중첩되는 구성을 보여준다. 크리스 로는 이 서피스 작업들을 드로잉, 전사, 판화 등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펼치는 자유로운 2차원 평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하였고, 특정한 제목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익명에 가까운 작업들로 제작하다가 작업을 거듭하면서 개별 제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부여된 작품제목은 어떤 상황이나 인물의 심경을 전달하는 묘사하는 글귀들이다. 즉 크리스 로의 서피스는 다층의 레이어로 된 시각적인 평면(visual plane)이면서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메신저(messenger)이기도 하다.

우선 크리스 로가 서피스에 사용한 복사, 전사, 판화 기법은 1960년대에 개념미술 전시를 기획했던 세스 시겔롭의 책 형태의 전시 제록스 북(Xerox Book) 이나, 앤디 워홀,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같은 작가들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들을 연상시킨다. 당시 다량의 이미지를 복제, 재생산할 수 있는 최신 기술에 예술가들이 주목한 것이다. 원본-복제 이미지의 의미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달랐다. 예를 들어 세스 시겔롭은 전시장소로부터 자유로운 전시를 표방하며 복사기를 이용해 책 형태의 전시를 만들었는데, 그는 이 방식이 개념미술을 재생산 및 확산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작가들에게 동일한 지면을 할당하고 여기에만 수록하는 작품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책을 얼마든지 복제 가능하게 하여 원본 개념을 부정하였다. 광고 디자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앤디 워홀은 당시 광고에 많이 사용된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 재난, 죽음, 유명인사들의 이미지를 복제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그는 이미지의 반복을 중요한 형식 요소로 사용했는데, 그에게 반복의 작용은 의미를 ¹빠져 나가게 하는 것인 동시에 어떤 감정이 생겨나게 하는 것에 대한 방어이기도 했다.¹ 그는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의미는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기분은 점점

¹ 할 포스터 외 지음,
배수희 외 번역,
1900년 이후의 미술사
(서울: 세미콜론, 2007),
490.

더 좋아지고 멍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나, “내 그림들과 영화들, 그리고 나 자신의 표면을 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그 배후엔 아무것도 없다”고 하거나, 또는 “나는 기계이기를 원한다”고도 하여 자신과 자신의 작품을 텅 빈 주체로 이미지화 하기도 하였다.² 인물 사진을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할 때에는 색상에 변화를 주거나 기계적인 오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역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점의 에디션을 판매하는 마케팅 수완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크리스 로의 이미지 제작 과정에도 원본의 복제와 변형이 끝없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크리스 로의 서피스에서는 이미지의 원본과 복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는 개인전 *우리같은 도둑*의 전시도록(2022)에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수록하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 이미지의 변환 과정을 도식화하였는데, 여기서 이미지가 미디어를 거쳐가는 과정을 ‘도둑’ 개념에 빗대었다. ‘마크메이커는 애니메이터에게 훔치고, 마크메이커는 프린터에게서 훔칩니다. 애니메이터는 마크메이커에게서 훔치고, 애니메이터는 프린터에게서 훔칩니다. 프린터는 애니메이터에게서 훔치고, 프린터는 마크메이커에게서 훔칩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모든 것에서 훔칩니다.’³ 여기서 ‘도둑’은 작가가 이미지 변환 방법에 익살스럽게 빗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전시의 이미지 제작과정에 대해서 다섯 단계에 걸쳐 꽤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제일 첫 단계인 A 단계에는 오리지널 마크메이킹을 인쇄, 움직임으로 전환시키고, B 단계에서는 반복을 통해 원본의 아우라와 분위기를 쫓는 시도를 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마크메이킹을 디지털화 하여 인쇄, 움직임을 반복한다. C단계는 움직임 방법에 집중하고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마크메이킹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한다. D단계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반복 단계이고 인쇄와 마크메이킹을 혼합한다. 그리고 E단계는 순수한 마크메이킹의 인쇄 단계로 다양한 표면과 플랫폼에 인쇄가 시도된다. 이렇게 해서 제작된 작품들은 모두 비슷한 단계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의 산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작품 캡션에 표기된 제작기법과 실물 이미지를 통해 유추해 볼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작가가 이미지를 전환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이미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또

² _____
위의 책,
488.

³ _____
크리스 로,
우리같은 도둑
(2022, 서울: 소환사),
pp. 12-15.
(*우리같은 도둑*
(2021.11.16-12.11,
서울: d/p)의
전시도록)

그렇게 생성된 이미지들은 변환의 중간 과정으로 머물기보다는 그 자체로 유기체처럼 존재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조형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세 명의 도둑이 있습니다 (2023)에서 크리스 로는 인천의 쉬, 서울 성북구의 새공간, 그리고 더 인터넷이라는 세 개의 공간에서 전시를 열었는데, 시간, 공간, 물질을 키워드로 하여 세 공간을 각각 구성하였다. 이 전시에서도 그는 도둑이라는 개념을 작업에 활용한다. 여기서 도둑은 온순하고 섬세한 도둑, 즉 범죄를 연상시키는 도둑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는 의심을 살 수도 있을 정도의 섬세함을 지닌 도둑이다. 이 오묘한 도둑 개념은 난폭하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온건함을 표방함으로 해서 오히려 도발적이다. 그리고 전시의 주요색인 노란색 역시 도발적이다. 노란색은 따뜻하고 생기발랄한 색상이지만 경고의 의미도 포함하는 모순적인 색상이기 때문이다. 노란색이 주는 이 양가적인 심리는 공간 연출에서도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공간에 작품을 비치한 후 노란 라인 조명과 모니터의 빛을 통해 색을 강조한 인천의 쉬, 그리고 각목으로 다소 복잡한 구조를 만든 후 서피스 작업들을 각목 구조물에 매달거나 그 사이에 비치한 새공간의 연출. 이곳에 사용된 백색 라인 조명은 노란색의 채도를 좀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강한 직선의 구조물과 각진 프레임을 돋보이게 하면서 평면보다 선적 요소가 강조된 좁은 공간에서 노란색은 위태로움에 대한 심리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세번째 공간인 더인터넷에서 노란색은 경쾌한 리듬을 타며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웹의 구성이 화면을 스크롤 할 때마다 끊임없이 꿀렁거리는 리듬을 타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따라오는 하얀 조약돌 형상은 꿀렁거리는 화면과 솔래잡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온라인 상의 이 이미지들은 평면에서 추출되었겠지만 모니터 상에서 끊임없이 변형 되면서 형태를 규정할 수 없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이번 개인전 *고요한 웃음* (2023)에서 크리스 로는 좀더 다양한 색과 형상을 경쾌하게 펼쳐 보인다. 에이라운지 전시장 문을 열면 벽면과 바닥 곳곳에 위치한 작업들이 각기 고유한 표정과 리듬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번 전시의 디스플레이는 대체로 관람객이 작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작품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다. 작품들이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기거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은 크리스 로의 이전 개인전들과 큰 차이가 없지만 벽면에 걸린 작품들은 각기 표정을 지닌 채 관람객을 맞는다. 그리고 이들의 시선이 모이는 전시장 중앙에는 짧은 다리가 많이 달린 두 개의 백색 평상이 전시장 바닥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관람객은 이곳에 앉아 작가의 글을 읽을 수 있다. 또 바닥부터 천장을 지나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다소 복잡해 보이는 선들로 연결된 전화기들은 전시장 안에서 유선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설치되었다. 이 모든 작업들은 공간 전체에서 면과 선의 반복과 변주가 리드미컬하게 펼쳐지고 중첩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즉 삼차원 공간에서의 작품들의 배치와 상호관계 역시 이차원 평면에서 이미지가 반복, 변형, 변주되는 방식과 비슷하다.

한편, 크리스 로는 그가 작가로서 선보이는 작업들이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디자인 작업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가 좀더 자유로워지며 혼을 담을 수 있는 작업이 되기를 원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술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⁴ 그런데 현재 그는 글쓰기에 심취해 있고 전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바, 메시지 전달은 아니더라도 그가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개인전 우리같은 도둑 (2021)에서부터 자신의 자전적 에피소드를 몇 편의 도둑 이야기로 발표하고 자신이 글쓰기에 재미를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는데, 이와 더불어, 기존 작업들이 소리라면 글쓰는 작업은 가사일 수 있겠다는 비유를 하였다.⁵ 사실 그는 자신의 그래픽 작업을 소리에 빗대거나 텍스트와의 관계를 염두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는데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기존 그래픽 작업들을 ‘사운즈 시리즈’로 부른다고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처음에는 어떤 메시지나 의도를 담으려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작업에 빠져들었지만, “네 작업을 보고 있으면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친구의 코멘트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사운즈 시리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⁶ 즉 크리스 로의 일련의 그래픽 작업들은 표면이면서도 소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텍스트를 소리 없는 기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언어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인식은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이 모두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소리 없음 또는 침묵 또한 그의 작업을

관통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생각이 함축된 ‘고요한 웃음’이라는 이번 개인전 제목이 탄생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크리스 로의 글쓰기는 자전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졌다. 작가를 모르는 사람도 오토픽션처럼 읽을 수 있도록 작중 화자 또는 주인공은 크리스 로에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그는 자신의 글을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거라고 말하는데, 익살스럽기도 하고 웃프기도 한 에피소드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그의 개인전은 한 편의 희곡이자 연극처럼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작품 배치와 캡션 정보를 수록한 전시의 플로어 맵을 살펴보자. 흥미롭게도 크리스 로는 그동안 제작한 개인전 도록마다 플로어 맵을 수록해왔는데, 그의 플로어 맵은 작품의 공간배치에 대한 정보이자 기록이지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연극 무대 위의 배우들의 위치와 동선, 캐릭터의 성격, 또는 그들의 대사나 지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넘버링이 된 작품의 제목마다 어떤 상황에 놓인 인물(우선적으로는 작가가 제일 먼저 오버랩 된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생각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번 개인전의 <Fear of Speaking Of The Things I Wish For(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Believe Nothing Of What You Hear, And Only Half Of What You See(들은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말고, 본 것은 반만 믿기)>, 또는 <I Choose Not To Let My Circumstances Persuade Me Instead I Choose To Persuade My Circumstances(나는 상황에 의해서 설득당하기보다는 내가 상황을 설득하기를 선택한다)>와 같은 작품 제목은 해당 작품의 이미지보다는 전시제목 ‘고요한 웃음’과 연결되어 파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 맵을 참조하면서 해당 작품을 보는 관람객에게 이미지와 텍스트의 밀착 관계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작가에게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매칭이 중요할 수 있지만 관람객에게는 전시된 이미지들 전반의 저변에 깔린 작가의 생각들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것은 흔히 추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이미지와 내러티브 즉 묘사를 담고 있는 언어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리스 로의 이미지와 내러티브가 유리되는 관계는 아니다. 만약 개인전 고요한 웃음 이 크리스 로의 모든 텍스트를 제거한 채 이미지만 제시된 전시였다고 가정해 보자. 그것만큼 강한 묵언이 있을까? 그런데 크리스 로는 소리없음의 소리이든, 소리있음의 소리이든 이미지들에

⁴ _____
위의 책.

⁵ _____
위의 책.

⁶ _____
더 갤러리아 매거진,
2023년 6월호, 159.

소리를 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내러티브를 담은 소리다. 그의 글에 에피소드로 등장한 전화기 너머의 공기, 그 침묵, 그것은 소리없음의 소리이지만 내러티브를 담은 소리였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에는 유머가 중요하다. 작가는 개인전 글에서 오리너구리 연구 보고서에 대한 에피소드를 거론하고 자신이 오리너구리로 표상되는 아름다움과 유머가 동시에 있는 존재를 상상하면서 아름다움과 유머를 결합하는 시도를 하고자 했음을 언급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유머는 공존하기 어려운 일종의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그 난관을 마주하는 것을 이 전시는 지향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시도가 ‘들리지도 않는 웃음’ 정도로 미약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의기소침에 깔린 익살로 보인다.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익살이 넘치기도 하는 유머, 그의 다이나믹한 유머는 전시 공간의 공기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의 표면 아래의 소리들 역시 전화기 너머의 공기처럼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끝)

Surface or plane. Chris Ro categorizes his flat works as "surfaces" on his website. I struggled with what to call his two-dimensional works and decided to go with the artist's description. His surfaces are organism-like shapes that grow, develop like seeds perhaps planted in the ground, transforming, combining over time. They are usually composed of several layers of rectangular colored surfaces and free-form curved drawings. The works began as a series of freeform, two-dimensional plane based projects that utilized a variety of techniques, including drawing, transfer, and printmaking. They were created as anonymous works without specific titles, but as the series progressed, the artist began to give them individual titles, which are descriptive phrases. And these phrases perhaps convey the state of mind of a situation, scenario or character. In other words, Chris Ro's surfaces are both multi-layered visual planes and messengers of narrative.

The copying, transferring, and printmaking techniques used by Chris Ro on these surfaces are reminiscent of Seth Siegelaub's Xerox Book, a book-length exhibition of conceptual art published in the 1960s. Perhaps there are also reminders of the work of artists such as Andy Warhol and Robert Rauschenberg using silk

screening techniques. At the time, artists were often drawn to the latest technology that could duplicate and reproduce large numbers of images. Seth Siegelaub, for example, used photocopiers to create book-length exhibitions in the name of liberating exhibitions from given, physical spaces, which he believed could be an effective means of reproducing and disseminating conceptual art. He asked artists to create works that were allocated the same amount of pages and released only by book, negating the notion of originality by making something infinitely reproducible. Andy Warhol, who began his career in advertising design, utilized the silkscreen technique, then popular in advertising, to reproduce images of goods, disasters, death, and celebrities. He used the repetition of images as a decisive formal element. For him, the action of repetition was both a defense against escaping meaning and a defense against evoking certain emotions.¹ “The more you look at the same exact thing, the more the meaning goes away, and the better and emptier you feel,” he said, or “just look at the surface of my paintings and films and me, and there I am. There's nothing behind it,” or “I'd like to be a machine.”² This is how he envisioned both himself and his work as empty subjects. When silkscreening his portraits, he would often use color variations or mechanical errors to his advantage, and he would use marketing tactics to sell multiple editions of the work at the same time.

Chris Ro's image-making process also involves endless reproductions and transformations of the original, so what can we thin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reproduction in Chris Ro's surfaces? For his solo exhibition *Thieves Like Us* (2022), Ro included a “process diagram” in the exhibition catalog, and over the course of several pages, he schematiz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mage, which he likened to the concept of a “thief” as the image passes through various forms of media. “The markmaker takes from the animator. The markmaker takes from the printer. The animator takes from the markmaker. The animator takes from the printer. The printer takes from the animator. The printer takes from the markmaker. The graphic designer

¹ Foster, Hal. Translated by Bae Suhee. *Art Since 1900: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Seoul, Semicolon, 2007), 490.

² Ibid, 488.

takes from them all.”³ The “thief” here is a playful reference to the artist’s method of image transformation. He explained the process of creating the images in the exhibition in extensive detail over five stages, the first of which is Phase A, where the original mark making is converted into print and movement, and Phase B, where he tries to chase the aura and mood of the original through repetition, the method he uses is to digitize the mark making and repeat it in print and movement. Phase C focuses on movement and creating mark making in an analog way. Phase D is an iterative phase that brings it all together and mixes print and mark making. Phase E is the print phase of pure mark making, where he attempts to print on different surfaces and platforms. It’s hard to tell if the pieces in this series have all gone through similar stages, or if they are the product of an intermediate stage. We can only infer this from the captions and the actual images. However, the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the artist is constantly trying to expand the image and find new possibilities for the image by repeating several methods of image transformation. The images created in this way are not only intermediate processes of transformation, but also have a formative quality that exists and moves like an organism in and of itself.

3

Ro, Chris,
Thieves Like Us,
(2022, Seoul,
Sohwansa),
pp 12-15.
Thieves like Us,
2021.11.16–12.11,
Seoul, d / p
exhibition catalog.

In *Here are Three Stories, Here are Three Spaces, Here are Three Thieves* (2023), Chris Ro organized an exhibition in three different spaces: Shhh in Incheon, New Space in Seongbuk-gu, Seoul, and The Internet, with time, space, and matter as keywords for each of these three spaces. In this exhibition, he again utilizes the concept of the thief in his work. Here, the thief is a gentle and delicate thief, not a thief that evokes criminal behavior, but a thief that is ethically questionable. This concept of this ethereal thief is not violent or aggressive, but perhaps rather provocative in its moderateness. The main color of the exhibition, yellow, is equally provocative. Yellow is a contradiction in terms: it’s a warm, cheerful color, but it also simultaneously serves as warning. This ambivalence is also reflected in the way the spaces are set up. Shhh in Incheon, where the artwork is placed in a completely dark space and the color is accentuated by yellow line shaped lighting as well as the light cast from monitor displays and at New Space, where a somewhat complex structure is created with angular wood where the surface works are hung on or placed between. In

New Space, there exists a white, line shaped lighting system that serves to further saturate the yellow color, but it also accentuates the strong straight lines and angular frames. This in turn evokes a sense of precariousness especially in the midst of a narrow space where linear elements were emphasized. In the third space, The Internet, however, the yellow takes on an upbeat rhythm. The web’s hyperlinked organization creates a constant humming rhythm as you scroll across the screen, and the white pebbles that follow your mouse movements seem to play a game with this humming screen. These images online may have been extracted from a flat surface, but on the monitor they are constantly transforming, moving like shapeless organisms.

In this solo exhibition, *Silent Laughter* (2023), Chris Ro explores a more playful array of colors and shapes. Upon opening the doors to the A-Lounge exhibition space, the works on the walls and floor greet the viewer with their own unique expression and rhythm. Most of the displays in this exhibition allow the viewer to look directly at the artworks and closely examine these expressions. The display of the works, which actively inhabit the space, is not much different from Chris Ro’s previous exhibited work, but here the work on the walls seems to greet viewers with their own individual elucidation. In the center of the exhibition, where their gazes converge, two white flat surfaces with many short legs occupy a large part of the exhibition floor, where visitors can sit and read the artist’s texts. There also exists a series of telephones connected by a rather complicated-looking wire system that runs from the floor to the ceiling and back down to the floor. These phones are installed to make landline calls within the exhibition. All of these works are presented in such a way where repetition and variation of planes and lines rhythmically unfold and overlap throughout the exhibition space. The arrangement and interrelationship of the works in three dimensions is similar to the way images are repeated, transformed, and altered on the two-dimensional plane.

On one hand, Chris seeks for his work as an artist to be freeing. Perhaps more soulful or soul oriented than the design practice he does for clients. Perhaps above everything, he wants to be free from the pressure that art or visuals must convey a meaningful message.⁴ However, since he is also currently immersed in writing as a part of his

4

Ibid.

art practice and actively presenting his essays in conjunction exhibitions, it is worth observing how he connects both image and narrative. This process sometimes leaves the matter of implication or implied messages aside. In his solo exhibition *Thieves Like Us* (2021), he presented several autobiographical episodes through the format of stories of thieves and confessed that he enjoys writing. He also made an analogy that if his previous works were something akin to sounds, perhaps this writing could be something akin to lyrics.⁵ In fact, he has often compared his graphic work to sound and considered this sound relationship

⁵
Ibid.

to text. In a recent interview, he referred to his existing graphic work as the “sounds series.”⁶ According to him, at first he didn’t have a specific message or intention in mind, but a friend once commented, “When I see this work, I think I can hear something.”

⁶
The Galleria Magazine,
2023, June, Issue 159.

This inspired him to call this series of explorations the “sounds series.” In other words, Chris Ro’s series of graphic works are both surfaces and sounds. Considering the fact that he once said that he thinks of text as soundless symbols, it seems that both sound and soundlessness are both important, fundamentally, when he perceives language as a means of communication. Therefore, soundlessness or silence also becomes an important material that runs through his work. And this soundlessness, as well as his personal thoughts and experiences with it, is the architect of the title of this particular solo exhibition, “Silent Laughter.” The narrator or protagonist is naturally superimposed on Chris Ro. Thus, the work can be read like an autobiography even if the reader does not know the author. He has said it would be joyous to one day make a movie out of his writing, which could be organized into an omnibus of both hilarious and harrowing episodes, but there exists already plenty of room for his solo show to function both as play and theater. There’s a floor map of the exhibition, with artwork placement and caption information. Interestingly, Chris Ro has carefully considered the floor map in each of his solo exhibitions. While his floor maps are a record of the spatial arrangement of the works, with a little imagination, they can also be seen as presenting the positions and movements of the actors on the stage, the personalities of the characters, or their lines or fingerprints. This is because each numbered title of the

work implies a person — initially, I thought of the artist — in a certain situation and his or her experiences and thoughts. For example, in this solo exhibition *Fear of Speaking Of The Things I Wish For*, and *Believe Nothing Of What You Hear, And Only Half Of What You See*, or *I Choose Not To Let My Circumstances Persuade Me Instead I Choose To Persuade My Circumstances*, these titles seem more associated with the exhibition title *Silent Laughter* rather than the actual images of the work. So th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text is not readily apparent to a viewer who is simultaneously viewing the work while referring to the floor map. While the matching of image and text may be important to the artist, the viewer is somehow directed to the artist’s thoughts behind the images on display. This is often what happens when non-descriptive images, often referred to as abstractions, are combined with narrative, or descriptive, language.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and narrative is not a favorable one for Chris Ro. Imagine if the *Silent Laughter* had been an exhibition of images only, with all of Chris Ro’s texts removed. Would it have been as powerful of a silence? But Chris Ro wants his images to contain soun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one of silence or with auditory elements: that is sound with a narrative. The air beyond the phone, the silence, which is episodic in his writing, is a sound of silence, but it’s also a sound with a narrative, and humor is important to that narrative. In his solo exhibition statement, the artist refers to an episode about a platypus research report and mentions that he was attempting to combine beauty and humor by imagining a being with both beauty and humor, represented by this platypus. In his opinion, beauty and humor seem to be a kind of ideal state that is difficult to coexist. But the exhibition aims to challenge this impossibility and address the difficulty of this coexistence. The artist says that his attempts here may be as soft or subtle as “inaudible laughter.” But this seems to be a playfulness underlain by a sense of resignation. His dynamic humor, which at times feels resigned but at other times is full of mischief, is present in the air of the exhibition space. And the sounds beneath his surface also fill the exhibition like the air beyond the phone. (end)

Fiction & Nonfiction

1장.

침묵에 귀 기울이기. 침묵 듣기.

Chapter 1.

Listening To Silence. Hearing
Silence.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내 부모님의 나라로 돌아온 것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제 뿌리를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선물이었죠. 고대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 로마에 가면 로마인들처럼 행동하라. 그래서 이곳에서 첫 직장을 구할 때부터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한국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순간, 매일,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항상 알고는 있었지만 집 밖에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가족들만이 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이유는, 모든 판단과 평가의 기준에서 제가 사실상 거의 한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저는 한국인입니다. 문화적으로나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만 판단하자면 저를 한국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기준에서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미국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은 항상 제 사무실로 전화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서툰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하려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사람이 연락을 받기를 기대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 전화번호부, 웹사이트 연락처 목록 등 모든 곳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사용하는 한국어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실제 대화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전화로 주고받는 용어와 대화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저는 실력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런 대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런 전화 통화를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화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테니까요. 진짜 중요한 경우, 영어로 대답하면 스팸 전화나 마케터 전화를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하면 진짜로 저와 소통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거의 평생 동안 늘 해왔던 것처럼,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Hello)"라고

간단히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전에도 수백만 통의 전화를 받았던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온, 묘한 기류가 따라옵니다. 이 전화 통화 중에 경험한 현상은, 제가 계속 생각했고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 것. 즉, 바로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들을 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니다. 저는 침묵을 직접 느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후 이렇게 종종 "여보세요(Hello)"라고 전화를 받곤 했죠. 그리고 반대편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방금 저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건 알았어요. 가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가끔은 선명했습니다. 숨소리는 없었지만 백색 소음으로 전화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죠. 그리고 몇 초 후, 전화가 아주 조심스럽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부드럽게요. 마치 외과 수술하듯 전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으며 전화를 끊는 그들의 손길이 상상될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조용히.

언어적 정보 교환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이 순간 제 인생 처음으로, 침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순간, 소리 내어지지 않은 것들이 도리어 저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망설이는 소리 말이지요. 상대방의 망설임이 소리로 들렸습니다. 갈등하는 소리도요. 마음속 갈등. 비록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조용했지만 상대방이 심사숙고하며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론 중. 이 전화를 어떻게 받을지 토론 중입니다. 영어로 된 "Hello"에 어떻게 응답할지.

숨 쉬는 소리. 숨소리는 때때로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들요. 많은 경우, 사람의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어요.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잠시 짧게 멈추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는 숨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의 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어 하는 사람. 뒷문으로 도망치고 싶었던 사람. 잡히고 싶지 않았던 사람.

때로는 수화기 끊는 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전화를 끊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중하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두 손으로 전화를 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럽게 전화 수화기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가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수화기 너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전화를 끊는다는 것은 무언가가 지나간다는 신호였습니다. 포기한다는 신호였죠. 무언가가 떠난다는 신호. 어쩌면 그것은 곧 죽을 통화에 대한 조의(弔意)의 표시였을지도 모릅니다. 곧 죽어서 저승으로 갈 전화 통화. 어른들을 위해 술을 따르는 것처럼. 또는 낯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최대한 정중하게요.

이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침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When I first came to Korea I thought it would be best to use my Korean name. It just made sense. Returning to the motherland this was a precious opportunity. A rare gift to experience my roots. A time to connect with ancient spirits.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So with the very first job I had here, I decided it would be best to use my Korean name. I began using it everywhere. I used it in every moment, everyday with pride. It would be the first time in my life to use this name in official circumstances. Prior to this, this name had gone almost completely unused. It was a name that I had always known and yet had never been used outside of my house. A name only my family would call me. But in hindsight, using this name was extremely problematic for a number of reasons. The first and most obvious reason was that by all standards of measure and assessment I was actually almost not Korean at all. Ethnically, biologically yes I was Korean. Perhaps somewhat culturally, yes perhaps some basic components could be considered Korean. But by every and any other metric I was not Korean. I was completely American. At this job, people would call my office all the time. And my limited Korean was unable to understand what these people were calling about. They called with the expectation of a Korean person answering the phone.

That was the name that was listed on my office door, in the phone directory, in the website contact list, everywhere. But the person that was answering this phone was actually not Korean.

The Korean language used over the phone was also subtly different from the Korean language that took place in live conversation. I could handle the live conversation to a certain extent but the terminology and dialogue over the phone was something much more challenging. I was not only ill-equipped, I was physically unable to handle these conversations. A dear friend recommended to me a simple method to handle such phone calls. Answer in English she said. She said more often than not, the truly important phone calls would naturally get filtered in this process. If it was truly important, answering in English would naturally filter out the spam calls or the marketers. Answering in English would make way for those who really had something that needed to be communicated with me.

So I started using this method. With any and every call coming into the office, I would do as I had done for almost my entire life before, I would pick up the phone and simply say, “Hello”. Hello. As I had always answered millions of phone calls before.

What followed was an atmospheric phenomenon that to this day, I am still seeking to understand. A phenomenon I continue to think about and hope to comprehend. What I experienced during these phone calls was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 felt that I could hear silence. I was able to feel and hear silence. Let me explain further.

So I would often answer the phone, “Hello”. And I knew there was somebody there. Somebody had just called me. But there was no verbal reply. It was silent. But I knew somebody was there. I could sometimes hear their breathing. It was sometimes faint. It was sometimes clear. And sometimes there was no breathing but I could tell by the white noise that the line was still connected and somebody was there. But there was no reply. And then a few seconds in, I could hear the phone very gently being hung up. Almost as gently as possible to show no disrespect. To the point where I could imagine their hands, almost like a surgical procedure, setting the phone receiver back in its place to hang up the phone. As gently as possible. As quietly as possible.

And this is when I realized that although there was no verbal exchange of information at all, it was her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hat I could hear silence. It was the first time that I realized that silence could say so many things. The things that were not said in these moments said so many things to me. I could hear the sound of hesitation. I could hear the other person's hesitation. I could also hear the sound of debate. Internal debate. Although it was completely silent, I could hear the other person thinking and deliberating. Debating. Debating how to answer this phone call. How to respond to “hello”.

The sound of breathing. This could sometimes say so much. More than words. Sometimes I could hear the breathing of a person on any given day. I could hear the air going in and out. I could sometimes hear the sound of shortened breath. Or the sound of a person trying to prevent their breathing from making any sounds. A person who wanted to run away. Who wanted to escape out the back door. A person who did not want to be caught.

Sometimes there was beauty in the sound of the receiver hanging up. There were a number of methods for people to hang up on me. But I began to differentiate between these methods and I could tell that for the most part, many people were trying to be courteous. Respectful. And I knew they were hanging up the phone with two hands. As gently as possible, putting the phone receiver back in place. Perhaps it was again, conducted in a manner so they could quietly escape. I also felt sometimes it was almost remorseful. Hanging up the phone with two hands was a sign of something passing. A sign of giving up. A sign of something leaving. Perhaps it was showing respect for the phone conversation that was dying. The phone conversation that was about to die and go into the afterlife. Like pouring alcohol for elders. Or giving gifts to strangers. It was with two hands, as gentle as possible. As respectful as possible.

This was silence. This was listening to silence.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I could hear silence.



When Silence Can Be Heard And Then Hearing All The Things Silence Might Say
56 x 39.5cm, Acrylic on Paper, 2023



Words That Perhaps Are Uttered And Not Spoken
54.5 x 39cm, Acrylic on Paper, 2023



Being Called Every Name In The Book,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2장.

품절이라는 이름의 현지 요리 주문하기.

Chapter 2.

Ordering A Local Dish Called
Sold Out.

서울에 살기 시작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저는 같은 장소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카페, 같은 편의점. 저는 도시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춰진 서울의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게도 적고. 선택의 폭이나 소비의 기회도 적었죠. 특정 장소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자주 찾고 싶어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리함과 익숙함 때문에 자주 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고 이미 단순한 제 삶을 더 단순화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중, 다른 식당보다 더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테리아였죠. 점심을 위한 카페테리아. 매일, 카운터 앞에는 그날의 메뉴 서너 가지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에 따라 실제 음식 견본이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그리고 저는 매일 이곳에 와서, 메뉴를 직접 보고 이 중에서 주문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었죠.

하루는 선배 동료와 함께 이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정심에 가까운 점심이었죠. 거의 대부분 혼자 식사하는 친구가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저는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저흰 평소와 같이 주문했습니다. 줄을 서서 그날의 점심 메뉴를 살펴보고, 실제로 주문하기 전에 무엇을 먹을지 마음 속으로 선택을 하는 과정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맨 아래 선반에 있는 네 번째 요리였습니다. ‘품절’이라는 메뉴였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다른 메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주문을 하러 계산대에 가서 “품절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웃으며 이 메뉴는 오늘 주문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따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 메뉴가 없는데 음식 샘플을 진열대에서 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지요. 아무튼 저는 재빨리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앓을 테이블을 찾으러 갔어요. 얼마 후 동료가 합류했습니다. 제 동료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제가 주문한 ‘품절’이라는 메뉴가 사실 메뉴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었죠: ‘품절’은 실제로 ‘sold out’을 의미했고, 이 메뉴가 더 이상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메뉴는 그날 매진된 상태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카페테리아를 자주 찾았죠. 몇 달 동안 그날의 최고 메뉴가 무엇인지 관찰하고 고민했고, 몇 달 동안 ‘품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점심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산대의 친절한 여성 직원은, 매번 이 메뉴는 주문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게 설명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메뉴가 달라져도 '품절'이라는 이름이 항상 같다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도 전혀 인식되지 않았죠. '품절'이 항상 가장 맛있어 보였기 때문에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 메뉴를 주문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건은 제게 언제나 기억에 남을 일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이 상황을 재빨리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영어로 번역하는 동안 저는, 유감스럽게도, 제 실수가 본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저는 미국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누군가가 와서 'sold-out'이라고 주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죠. 저는 이 상황을 떠올리며, 누군가 와서 'sold-out'을 주문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품절'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불가능하다 느꼈던 것은, 아무리 영어가 서투른 어떤 사람도 'sold-out'을 주문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영어가 서투르도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미쳤습니다. 미친 영어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할 때, 제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지금 '품절'을 주문하는 이 사람은 미쳤을지도 몰라. 분명 미쳤겠지.

Within my first few months of living in Seoul, I would begin to frequent the same places. The same restaurants, the same cafes, the same convenience stores. I lived in a part of Seoul with a little less urban infrastructure. Less stores. Less options or opportunities for consumption. So it was not out of me particularly enjoying these particular places and coming back for more. I just begin to frequent them out of convenience and familiarity. It was survival and a method to simplify my already simple life. There was one restaurant I frequented more than others. It was pretty much a cafeteria. A lunch style cafeteria. And everyday, they would put out the three to four menu items of the day in the front counter. Each menu item would have

an actual sample sitting in the display window. And everyday, I would come, look at these menu items and order from here. A pretty simple and straightforward method.

There was one day I went to this restaurant with an older colleague of mine. I think he did not necessarily want to eat lunch with me. It was more of a pity lunch. Feeling sorry for the poor soul who would almost always eat by himself most meals. I was thankful for the company. We went about the same ordering process as usual. Standing in line, observing the lunch items for the day and then making our selections internally inside our minds before actually placing the order. I knew what I wanted. It was the fourth dish on the bottom shelf of the counter. It was called "poom juhl/품절" and it looked fantastic. It was a pretty obvious choice. The other items, for whatever reasons, just looked less appetizing. When I went to the register to order, I simply asked, may I have one "poom juhl/품절" please? The lady at the register smiled and said, this item was not available today. She would do this every now and then and I had often thought to myself, why would they not take that menu item out of the display if it was not available? I quickly selected a somewhat satisfiable second option and went to find a table to sit at. My colleague would join a few seconds later. My colleague would tell me that day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will never forget for your entire life. He was kind enough to let me know that the item I had been ordering, "poom juhl/품절", was actually not a menu item. He was kind enough to inform me that the term: "poom juhl/품절" actually just meant "sold out," as in, this menu item was no longer in stock. This menu item had been sold out for the day.

Thinking back now, it took me a bit of time to digest this revelation. For months, I had been frequenting this restaurant. For months I had been observing and debating what I thought would be the best menu item of the day. For months I had been ordering what I thought was a lunch menu called "poom juhl/품절". And for months, the kind lady at the register would always tell me this item was not available. I think she thought it was not necessary to explain to or correct me. It never registered with me that even though the menu item would be different, the name "poom juhl/

품절” was always the same. It never registered because “poom juhl/품절” always looked the tastiest. It only made sense to order that item.

Looking back, I think it was one of those revelations that I would always remember. Forever. I quickly translated this situation into English. And while translating this situation to English was when I realized, to my horror, the almost impossible nature of my mistake. When translating this into English I imagined myself working at a cafe or restaurant, perhaps in America. And somebody, who perhaps was not so fluent in English, would come up and then order a “sold out.” I began thinking of this situation and wondering what I would think if somebody had come up and ordered a “sold out.” “Hello, today, I would like to have a ‘sold out’ please. Thank you.” The impossibleness of this was that no matter how poor somebody’s English was, they would never order a “sold out.” It was just impossible. I could not think of a situation where somebody would say such a thing. No matter how poor their English was, this kind of sentence just could not happen. It was crazy. Just crazy. It was crazy English. When imagining this scenario, my first thought would be just that. This person, who is now ordering “sold out”, might be insane. Must be insane.





Understandable Misunderstandings, 71 x 48.5cm, Acrylic on Acrylic, 2023



Becoming A Better, More Obliging Person,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3장.

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14분 회의.

Chapter 3.

Fourteen Minute Meetings That
Last For One Hour.

한국에서 열리는 회의 양에 놀랐어요. 정말 많은 회의가 있었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회의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의의 목적도, 이유도 다양했죠. 물리적인 대면 회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콜 시대가 찾아온 지 꽤 오래된, 화상 회의의 시대가 갓 시작되던 미국에서 막 돌아왔던 때였죠. 우리는 사람들을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는 삼각형 모양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없었어요. 목소리만 있었죠. 그리고 이 목소리로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프로젝트 추진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삼각형 모양의 전화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회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물리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때때로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간의 분위기를 읽어내야 합니다. 방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의 반응을 읽습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을 읽습니다. 참가자들의 바디 랭귀지. 코드화된 사회였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죠.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읽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음 글썄요, 아마도 존재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삼각형 모양의 스피커폰은 오디오 품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섬세한 세부 사항들도 간신히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도 없었죠. 그런 미묘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디테일이 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어에는 '눈치'와 같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거나 지하철과 버스를 합쳐서 한 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 시간이 평균 이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은 어디든 한 시간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홍대에서 강남까지.

강남에서 성북동. 대학로에서 다시 홍대로. 한 시간을 이동하고 나면 모든 회의가 똑같이 시작됩니다. 거의 종교적인 절차처럼 거의 매번 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죠. 대략 4분에서 8분 정도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꽤 추워요. 추위를 어떻게 견디고 계시나요?” “오늘은 매우 덥습니다. 더운 날씨는 매우 불편하지 않나요?”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정말 많이 내리지요?” 그 다음 4-8분은 이 회의에서 무엇을 마실지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아이스? 물 드실래요? 차가운 물? 약간 따뜻한 물? 차 드실래요? 보리차?” 그런 다음 음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매장에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준비된 재료로 음료를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이 준비 시간 동안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어색한 침묵이요. 그리고 매번, 음료와 함께 동네 편의점에서 파는 작은 크래커나 쿠키가 함께 나오곤 했습니다. 음료가 나오면 그 다음 4-8분은 매우 일상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에 대한 매우 일반적이지만 제한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질문들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겠어요?” “지금 바쁜 시기죠?” 대부분의 이런 질문에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당신의 답변에 그다지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스처에 가까워 보였달까요. 예의의 표현. 배려와 존중의 표현. 아니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리고 드디어 회의가 시작됩니다. 회의에는 4분에서 8분 정도의 비슷한 소개 시간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자신의 이름, 직책 또는 직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명함을 돌리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는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고 깊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두 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명함을 각 참가자의 노트북이나 메모장 옆에 놓았습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직함이나 이름으로 참가자를 지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함은 항상 회의 테이블에 앉은 각 사람의 오른손 옆에 놓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장이 맨 위에 놓이고, 참가자가 더 많으면 아래에 또 다른 카드의 행렬이 생깁니다. 가끔 회의 참가자들이 이 카드를 다시 참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단지 존중과 성의의 표시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회의에는 파워포인트, PDF 또는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을 목차로 나열하고 설명한 다음 이러한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여러 개의 내부 페이지가 있는 일종의

프레젠테이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는 대부분 매우 행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나 고려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다음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제스처처럼 보였습니다. 문서 내용을 열정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정보 중 일부는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토론입니다. 성격이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토론이죠. 이게 정말 토론이었나요? 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부분 회의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그녀가 관찰한 몇 가지 사항만요. 그러고 나면 회의는 곧 끝나곤 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다음 단계가 논의되곤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요. 그런 다음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짐을 챙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럼 스탠포드 회의 참가자들은, 다시 말하지만, 예의상, 또 다른 일련의 대화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 다음 목적지가 어디인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이동해야 할 거리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오, 집까지 갈 길이 멀군요”. 그리고 그게 끝이었죠. 그러면 나는 한 시간을 더 이동해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저는 이러한 회의에 익숙해졌습니다. 회의는 항상 열렸어요. 그리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요. 하지만 가끔 전 우리의 회의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실제 진행된 회의 시간에 대해 생각하곤 했죠. 우리가 대면 회의를 진행하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시간 말이에요. 종종 계산을 하고 난 후 나온 숫자는 슬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날에는 회의의 실제 ‘회의’ 시간이 8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들에는 ‘회의’가 ‘합리적이게도’ 실제 20~30분 정도 걸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30분을 넘지는 않았지요. 전반적으로 평균 회의 시간은 약 14분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실제 회의 시간은 한 시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평균 14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실제 업무 회의 시간인 14분을 위해, 이동 시간, 회의 시간 등을 합쳐서 총 3시간이나 허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회의와 회의 문화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필요했습니다. 매우,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이 회의 문화 때문에, 아직도 오프라인 회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상 회의는 어느 정도 정상적이거나 수용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의 연령에 맞추어, 화상 회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교적 새롭고 때로는 생소한 이 화상 회의 석상에서도 여전히 몇 가지 관행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 4-8분 동안, 누군가는 반드시 항상 나에게 인사하거나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꽤 따뜻하죠?” 아니면, “오늘 날씨가 꽤 춥네요?”

I was surprised by the amount of meetings that would take place here in Korea. Lots of meetings. For anything and everything. For every and any project, there could always be a fairly frequent number of meetings. Lots of meetings that were for and for all kinds of reasons. There seemed to be a certain importance placed upon physical, face-to-face meetings. I had just come from America where we were deep into the era of conference calls and just the very beginning of video teleconferencing. We had these triangular looking phones that would put people on speakers. No visuals. Just voices. And with these voices, we would discuss every detail of a project just enough to maintain the project momentum. Easy. But here in Korea, those triangle shaped phones did not exist. A physical meeting just seemed necessary in order to get any kind of project going.

Looking back I could say there were probably a number of reasons for the desirability of such physical meetings. In this society sometimes there were many things that were not said that could be just as important as the things that were said. There was a reading of the room. A reading of the energy of the room. A reading of the reactions of the meeting participants. Of the facial expressions of the participants. Of the body language of the participants. It was a coded society. A system with codes that had to be read, understood and interpreted in order to make decisions. A reading of the codes was necessary to properly conduct projects. In America, such things also did exist. Well, perhaps they did but for the most part such things seemed far less important. That

triangle shaped speaker phone we were using in America had extremely poor audio quality. We could barely hear all those subtle details. There was no video. There was no way we could detect such subtle things. But it did not matter. It did not really seem to affect any of our projects. In America, such details were less important. I think this might be the reason, words such as “noonchi/눈치” do not exist in English. It was not as necessary. But here in Korea, I found that these things actually were quite important.

Sometimes I would travel more than an hour on the subway or a combination of subway and bus to get to these physical meetings. Actually, an hour's travel time was probably the average. Everywhere in Seoul seems to be an hour or so away. Hongdae to Gangnam. Gangnam to Seongbukdong. Daehakro back to Hongdae. And after traveling an hour, every meeting started the same. Almost like a religious process, the same things would occur almost every time. There would be approximately four to eight minutes of discussion about the weather. “Today it is quite cold. How are you dealing with the cold?” “Today it is extremely hot. The hot weather is very uncomfortable isn't it?” “It is raining a lot today. The rain is really pouring right?” The next four to eight minutes would then be used for arranging what you would be drinking during this meeting. “Would you like to have a coffee? Americano? Hot? Iced? Would you like water? Cold water? Slightly warmed water? Would you like some tea? Barley tea?” Then there would be some preparation time for these drinks. Sometimes they would be ordered. Sometimes they would be prepared. During this preparation time there would often be silence. Sometimes awkward silence. And everytime, there would be some small crackers or cookies from the local convenience store. The next four to eight minutes would consist of extremely general questions. Questions that show a very general but limited understanding of your occupation. “You must be extremely busy these days.” “It is a busy time of year for you isn't it?” With most of these questions, it seemed that the one asking the question was actually not so interested in your answer. It seemed to be more of a gesture. A sign of courtesy. A sign of care and respect. Or a sign to show they were trying to be interested in you. Then the meeting would start. The meeting would sometimes include a similar four to

eight minute introductory period. People standing up and introducing their name, title or position. And then a time to pass around business cards. This would occur with two hands and a bow. The two hands would be used to extend the card for you to receive and similarly you would do the same back with two hands as well. The business cards were then placed next to each participant's notebook or notepad. This was so that the person could refer to the participants by title or name if necessary. They were always placed next to the right hand of each person on the meeting table. Most of the time, two would be on top, and then if there were more participants, another row of cards would form below. Sometimes participants would refer back to these. But this was rare. Most of the time, they were just there as a sign of respect and preparation as well I think. Most meetings had some kind of powerpoint, pdf or keynote presentation. A presentation document of some sorts with the meeting contents listed and explained as a table of contents and then with several interior pages explaining further these concepts. The document was more often than not, very administrative in appearance. Not much care or consideration for graphic design. We would then review the document. This process also seemed to be gestural as well. It was more often than not, not an impassioned delivery of the document content but more so a functional delivery of information. Thus leading me to often think, could some of this information not have been relayed over email? After this document has been reviewed, a discussion might take place. But more often than not, a questionable discussion at that. A discussion that might question its nature or identity as a discussion. Was this really a discussion? The discussion would not last long. More often than not, the oldest person in the room would have a few comments on some very minor sections of the presentation document. Just a few things he/she would observe. And then the meeting would sometimes soon end after that. A few next steps would be discussed. Very briefly. We would then say our official goodbyes. Pack up our belongings and then leave. The staff or participants, again, out of courtesy, would begin another series of dialogues for courtesy. They would ask where my next destination would be. And show empathy about the distance I was about to embark on. "Oh, you have a long way to go home". And that would be it. I would then travel another hour again back home.

After a while I just got used to these meetings. They happened all the time. And in the same way every time. But sometimes I would think about our meetings. I would think about the actual meeting time that had transpired. The time we actually spent meeting and actually something happening. More often than not, after I had done the math, the number that came out was both sad and surprising. On very extreme days, the actual "meeting" time of the meeting would take place in around eight minutes. On other, perhaps more normal days, the "meeting" time would actually enter more reasonable times, perhaps around the twenty to thirty minute marker. But never more than thirty minutes. Overall, the average meeting time probably sat closer to around fourteen minutes. The actual, physical meeting time was, of course, about an hour. But the actual time spent discussing anything of importance could be clocked in at an average time of fourteen minutes. So more often than not, a total of about three hours time, traveling, meeting, etc. would be used for an actual engagement of about fourteen minutes.

It would eventually take a global pandemic for a paradigm shift in meetings and meeting culture here. A global crisis was necessary to change a meeting culture that had been here for I would guess many, many years. And because of this, I still notice there being a greater preference for physical meetings. But videoconferencing has now become a somewhat normal or acceptable mode of communication. And so depending on the age of the participants, the suggestion for videoconferencing is alive and well. And although a relatively new and sometimes unfamiliar medium for meeting, there are some things that will always be the same. For about four to eight minutes, somebody for sure will always make sure to mention to or ask me, "The weather today is quite warm?". Or, "The weather today is quite cold?".



Selective Outrage, Selective Laughter, 45 x 37cm, Acrylic on Acrylic, 2023



The Neighbors Who Were Always Just That, Neighbors,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Never In A Month Of Sundays,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4장.

통닭 한 마리 주문하고 혼자 먹기.

Chapter 4.

Ordering Whole Chickens and
Eating Them All By Myself.

한국에 오기 전에는 뉴욕 맨해튼 아래쪽에 살았어요. 저는 혼자 살았고 싱글이었기 때문에 아무 술집에나 가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일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자주요. 생맥주에 안주를 곁들입니다. 가벼운 안주 정도요. 이건 정상이었습니다. 특이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흔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특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따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사람.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맥주 한잔하자고 부를 사람도 없으니 그냥 혼자 맥주를 마실 수도 있겠죠 뭐.

이 시기 뉴욕에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식당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뉴욕에 오기 전에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 그 첫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맛이었어요. 마법 같았죠. 아름다운 맛이었어요. 프라이드 치킨이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랑할 만큼 맛있었어요. 어쩌면 과거와의 연결고리에 대한 묘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뿌리와 어떤 연관성?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맛있었어요. 비현실적인 맛이었어요. 정말로 환상적이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런 마법의 치킨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 치킨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사방에 프라이드 치킨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그래, 내가 뭘 기대했을까요? 한국에 왔으니까요. 조국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프라이드 치킨은 바로 이곳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 특별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런 치킨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이 치킨에 매우 매료되었습니다. 때때로 한국에 있는 치킨집에 가서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행동할 정도로요.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치킨을 주문합니다. 치킨 브랜드마다 어떤 맛이 있는지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치킨집 치킨이 맛있고, 어떤 치킨집이 맛없는 지도 몰랐죠.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 곳이나 들어가곤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항상 혼자였습니다. 서투른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맥주와 치킨은 주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 제가 주문할 때마다 그들이 매번 주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아했습니다. 이 주문이 확실한가요? 가끔은 약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아님 어쩌면 걱정이나 우려를 나타내는 표정으로요. 두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은 언제 합류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는 총 몇 명이 함께할 건가요? 그리고 제가 혼자라고 말하면, 종업원은 천천히 오케이, 이해했어요라는 말로 느리게, "알았어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죠. 그 종업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어요. 실제 어깨를 으쓱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죠. 그렇지만 그 이후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나중에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몇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러 갈 때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첫 번째 생각:

우리 동네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바 같은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술을 파는 곳은 대부분 치킨집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앉을 수 있는 바나 카운터도 없어서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것이 미국보다 더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혼자 이곳에 오는 것이 미국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

한국 맥주는 일반적인 미국 생맥주보다 조금 더 묽고 가벼웠습니다. 쿠어스 라이트 브랜드와 매우 흡사한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버드 라이트. 가격표가 저렴한 국내 미국 브랜드. 나중에 이런 종류의 맥주는 혼자 마시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마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마시면 이 맥주를 더 쉽게 마실 수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덜 무거웠습니다. 덜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요. 저는 언제나 이 핵심 요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였죠.

세 번째 생각:

미국에는 '안주(술과 함께 먹는 간식이나 곁들임 요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 내내 빈속에 술을 마시고 나중에 영양가 낮은 음식으로 밤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항상 소소한 안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파스텔 톤의 다양한 색상의 크래커가 있었는데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맛도 나지 않는데도 입에 쑤셔 넣으며 이 아무 맛도 없는 과자가 이 가벼운 맥주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곤 했죠.

네 번째 생각:

혼자서 치킨을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치킨집에 가본 결과, 치킨을 모두 먹어 없애는 것이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치킨을 먹는 동안 다양한 변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도 없었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야채도 없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없었죠. 빵도 없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와 라이트 맥주만. 다른 옵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맛이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통닭을 먹는다는 것의 특별함이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통닭 한 마리를 통째로 다 먹는 것이 점점 더 즐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나중에 한국 사람들 사이의 집단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집단 사회였습니다. 둘 이상의 사회. '혼술(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었죠. 그래서 혼자 치킨집을 찾는다는 것은 참신한 일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물지만 이상하기도 했죠. 혼자 오는 손님이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나중에선 제 자신에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치킨을 혼자서 통째로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부 다요. 이 치킨은 사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르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와서 어떻게든 이 치킨을 다 먹어 치우는 슬픈 영혼이었죠. 참신함? 국가적 자부심? 외로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통닭을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사실 이 모든 것의 조합이었습니다.

Prior to Korea I had been living in New York, in the lower part of Manhattan. I was alone and single and it was a very frequent occurrence for me to walk downstairs to a random bar and get a beer by myself. Very frequent. A draft beer with perhaps some snacks. Perhaps something light to eat. And this was normal. Nothing unusual. Not entirely common. But not unusual as well. I was not alone as well. I would see these types of figures from time to time in New York. A person, sitting solo, having a beer

and reading a book. I was one of them. Nobody to call to have a beer, so perhaps I'll just have a beer by myself.

In New York during this time, there were two restaurants that served Korean style fried chicken. I had never had it before my time in New York. And I still remember that first taste of it. It was mystical. It was magical. It tasted wondrous. I just could not fathom how a fried chicken tasted like this. I loved it. Perhaps it was the strange longing for some connection to my past? Or some connection to my roots? But just objectively speaking it was amazing. It just tasted unreal. Truly fantastic. Whatever it was, it was both a point of pride and pleasure that this kind of magical chicken existed. And I would consume this chicken whenever such opportunities arose.

When I arrived in Korea, I was surprised to see that fried chicken was everywhere. Korean style fried chicken. Well, what was I to expect? I was in Korea. I was here in the motherland. And this was where this fried chicken came from. Perhaps it was the novelty. Perhaps it was that I had experienced this kind of chicken so rarely in the United States. Whatever it was, I was extremely fascinated by this chicken. To the point I would sometimes go to these chicken places in Korea and do as I had done in America. Have a beer. And order a chicken. I had no prior knowledge of what different chicken brands tasted like? What restaurants served good chicken and less than good chicken? I would just wander the neighborhood and go into these places. With no friends, nobody I knew at all, I would always be by myself. And despite my limited Korean, I would be able to order a beer and a chicken.

But I would also notice that every time I ordered, they would double check my order. Was I sure about this order? Sometimes with a slightly curious facial expression. Or perhaps a facial expression showing worry, or concern. The second question would be, when would the others be joining? Or how many people in my party total? And it would be when I said I was by myself, the server would speak slowly and say, okay, understood, "I got it". And then walk away. I could feel them shrugging. But actually, physically not shrugging. But it felt like

shrugging and it did not matter for I would then go about drinking my beer and later eating my chicken.

During this time several thoughts did occur that made much more sense later. Or, every time I went to order a chicken and beer by myself, I began to learn things. Or think certain things...

Thought number one:

There were not really any bar kind of places to drink in my neighborhood. Most of the places that served alcohol were like these chicken places. And with no actual bar or counter to sit at, eating or drinking by myself felt more conspicuous than in the United States. At first I was okay with this. But with every visit, I began to think perhaps me coming here alone was not like America.

Thought number two:

The beer was a bit more watery and light than typical American draft beer. I thought it tasted very much like the brand Coors Light. Or Bud Light. Domestic American brands with a lower price tag. I would later find that this kind of beer was better with groups of people as opposed to myself. In groups, this beer would go down in an easier fashion. In some ways it was less heavy. Less burdensome. But the key ingredient here was more people. Or groups of people. And I was always missing this key ingredient. I was always by myself.

Thought number three:

In America, there was little concept of "anju(snacks or side dishes to be served with alcohol)". We would often just drink on an empty stomach the whole evening and perhaps later, find some kind of junk food to cap off the evening. But here in Korea, there were always small things to eat. The one given was, every place had these crackers of varying pastel colors that tasted like nothing. They truly tasted like nothing but I would find myself shoveling them into my mouth and thinking that this taste of nothing actually went very well with this very light beer.

Thought number four:

Eating this whole chicken by myself was a challenge. After going to several of these chicken places, I realized that the actual finishing of the chicken was becoming more pain than pleasure. There was nothing else to provide a

sense of variety while eating this chicken. No rice. No side dishes(banchan/반찬). No vegetables. No carbohydrates. No bread. A whole, fried chicken with the light beer only. No other options. This was fine at the beginning for me because it just tasted awesome. The novelty of eating this chicken was so nice. But with every visit, eating this whole chicken and finishing it became less pleasurable with every visit.

All of these thoughts were later reaffirmed when I began to understand the kind of group dynamic that exists in Korea. This was a group society. A society of more than one. This was a time before the concept of “hon sool/혼술(drinking alone)” became a thing. And my visiting these chicken places by myself was not just a novelty, it was just kind of unheard of. Rare but also strange. Very unusual to have a solo customer. The more shocking thing I think though, both to the chicken place and later to myself was that I was actually eating this whole chicken by myself. The whole thing. This chicken was actually priced and constructed to be consumed and picked apart by groups of people. I was the sad soul who would come and somehow finish this chicken all by myself. Novelty? National pride? Loneliness? Eating this whole chicken I later learned was actually a combination of them all.



The Father Who Would Eventually Name His Child Dude
56 x 39.5cm, Acrylic on Paper, 2023



A Hundred Million Miles From Here,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Being Light Hearted With A Heavy Heart, 125 x 92cm, Acrylic on Acrylic, 2023

5장.

곰과 호돌이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을 때.

Chapter 5.

When A Bear and Hodori Ate
Garlic And Made People.

저는 문화에 목 말랐어요. 저는 유산에 목말랐습니다.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적 지식을 빠르게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무엇이든,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저는 제 뿌리를 발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나 이해하기 위해서요.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뿌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니었죠. 그저 어떤 과거를 찾고 있는 정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였고, 한국에 와서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말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탐구를 돕기 위해 한국의 설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 건국 설화였습니다. 동굴에 사는 호랑이와 곰의 신비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마늘만 먹은 곰은 결국 대한민국 건국 시조인 단군을 낳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낯설게 들리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국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호랑이, 곰, 마늘. 이 우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수없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초등학교에서 미국 우화만 들었던 아이였으니까요. 이걸 뭔가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완전히 새롭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 이야기에 대한 배움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곳에서의 짧은 생활에서 얻은 몇 안 되는 승리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에 대한 저의 탐구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에 대해 배운 것은 저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 야구 경기를 보러 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목동 야구장에서였죠. 최근에 만난 커플과 그 커플의 친구와 함께 갔었죠. 우린 결국 경기가 끝나고 치킨과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주와 치킨을 먹다 보면 그렇듯이, 대화가 여러 방향으로 흘러갔죠. 어느 시점에, 저는 제가 이곳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동굴이 존재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곰과 ‘호돌이’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곰과 ‘호돌이’가 마늘을 먹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그 저녁 시간 동안, 저는 내내 그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대화에 이용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견 곰과 ‘호돌이’ 같은 거죠?” 아니면 “아, 그래, 곰과 ‘호돌이’를 말하는 건가요”?

우리와 함께 있던 커플의 친구. 그는 맥주 몇 잔을 마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는 매우 친절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언어를 섞어가며 열심히 말을 걸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친절함과 저와 대화하려는 노력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저에게 무언가를 말해줘야,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 사실 때문에 속이 터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그러자 그는 제가 “호돌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호랑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호돌이”가 1988년 올림픽을 위해 개발된 호랑이 캐릭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를 ‘호돌이’라고 계속 부르는 제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는 그 사실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했어요. 내적 폭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슬픈 점은 제가 그 차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가 둘을 혼동했던 거죠. 그 짧은 순간 동안은, ‘호돌이’가 호랑이인 줄 알았습니다. 의도치 않은 단순한 실수였죠.

I was thirsty for culture. I was thirsty for heritage. I was thirsty to know of my roots. Life in Korea became a rapid accumulation of cultural knowledge that had been completely non-existent in my very American upbringing. And I was welcoming everything, anything and anyone that could tell me about my past. I was here to discover my roots. To know or understand where I came from. I was and had been this rootless person. Neither American, nor Korean. Just a placeless person seeking some kind of past. This was my story and I told it often when I came to Korea. I told it to anyone that would listen. And many people, in an effort to help me in my quest, shared stories of Korea with me. The one story that I would hear the most would be the sto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nation. It was a mystical story of a tiger and a bear living in a cave. And after several days of just eating garlic, this bear became a woman who would eventually give birth to the founder of the nation of Korea. It was a memorable story for me. As unfamiliar as it all sounded, something just felt very Korean about it. Tigers, bears, garlic. I was extremely thankful to even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is fable. I was sure this was something that little kids had been told numerous times. But I was the product of an American elementary school where we heard fables of America. This was something different. This was something all new and precious for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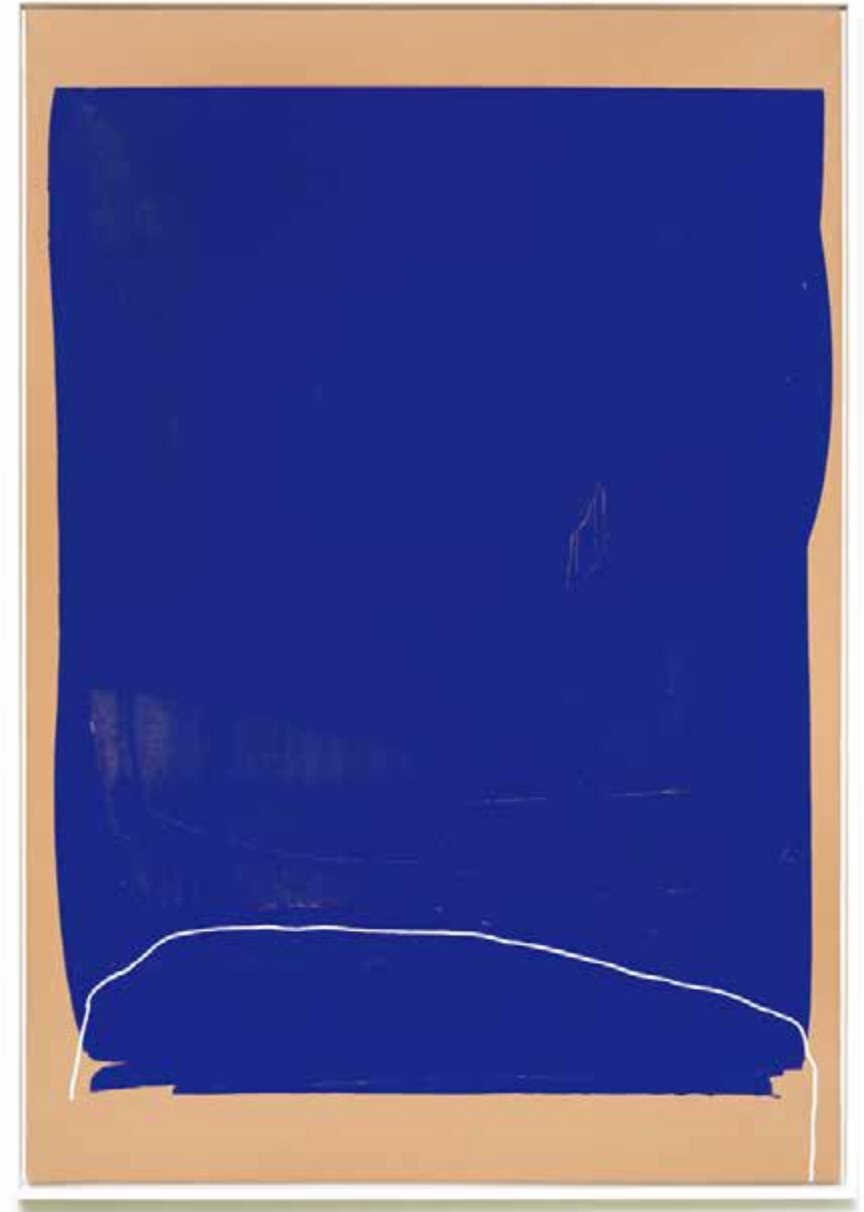
I shared my education of this story here and there with people I met in passing. It was one of the few triumphs of my brief existence here. An important and symbolic part of my quest for history. So I was proud to share that I had learned such important things. It was something special to me to have learned the founding of our country. I remember early on going to one of my first Korean baseball games. It was at Mok-dong Baseball Stadium. I went with a couple who I had recently met and their friend. We ended up having chicken and beer after the game. And as with beer, and chicken, the conversation can go many places. At one point in the conversation, I proudly began to bring up some of the things I had seen or learned during my time here. I remember that I had proudly told the story of how there was this cave. And in this cave was a bear and hodori. And that the bear and hodori ate garlic. And eventually, this was the founding of our nation. And I think during the course of the evening, as a kind of side to the conversation, I would occasionally bring this up, perhaps metaphorically. “Ahh, this is kind of like the bear and the hodori?” Or, “Ahh, yes, it is referring to the bear and the hodori?”

The friend of the couple who was with us. He was a few beers in. And he was very nice. Trying very hard to speak with me and mixing languages in order for me to understand. I was thankful for his niceness and efforts to speak with me. At one point, he said he could not contain himself anymore. And that he had to tell me or explain something to me. He had said he wanted to remain silent. But he could not keep silent anymore and it was busting him up inside. So I asked, what was it? What was it he wanted to tell me? And he then went on to explain that every time I said

the word “hodori” I should have actually been saying “horangi(tiger in Korean)”. He then went on to explain that the reason he could not contain himself was because “hodori” was actually this cartoon character of a tiger that was developed for the Olympics in 1988. And it was just so unbelievable that I kept calling a real tiger the word “hodori”. And he said it was killing him inside. He said he was losing it. Internal combustion.

And he could not hold it in anymore.

The sad thing is I did know this. But somehow I had mixed things up. And during this brief moment in time, I did think that hodori was tiger. It was an honest mistake.



My Heart Sometimes Receives Good Care From Others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Friends Of Friends Of Friends, 125 x 92cm, Acrylic on Acrylic, 2023

해장국은 미국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음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한식은 도시나 식당마다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을 위한 식재료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 식재료를 수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먹지만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요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해장국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전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먹었던 해장국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엄청 감칠맛이 있었어요. 매콤하고 진한 맛이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콩으로 만든 국물인 된장국의 좀 더 단단하고 엷지 있는 버전 같았어요. 비유하자면 핑크 록에 가깝게 느껴졌어요. 얼굴을 한 대 치는 수프.

해장국은 여러 재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모습들로 탄생합니다. 제가 처음 접한 해장국에는 가운데에 커다란 버건디색 또는 붉은색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거의 벽돌처럼 정사각형인 이 덩어리는 그릇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섬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이 덩어리를 "붉은 두부"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제가 받은 설명에서 수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었던 단편적인 조각들에서, 제 이해력으로는 “붉은 두부”라는 말이 이 요리를 처음 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붉은 두부”. 두부가 빨간색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다른 색의 두부라는 생각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리의 모든 것이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매우 흔한 팔이나 강낭콩을 베이스로 한 두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네. 정말 새로운 조합이야. 한국에서 두부에 대한 확장된 해석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먹었습니다. 두부의 식감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약간 더 건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밀도는 더 두껍고 강했지만 입안에서 녹는 방식은 더 건조한 재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의 가루처럼요. 그리고 이 가루에 가까운 성질이 저를 매료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져서 수프에 담겨 있는 것이 가루와 같은 성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좋은 의미에서요. 이런 결과는 저에게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부였어요.

해장국을 자주 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단체로 먹으러 가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해장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자 또는 남성용 요리처럼 느껴졌는데, 주로 남자들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았고, 식당 주위를 둘러보면 이 요리를 먹고 있는 건 대부분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은 대부분 늦게까지, 심지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고, 때로는 이 수프를 먹는 이유가 오롯이 빠르게 숙취 해소를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해장국의 빨간 덩어리 버전은 해장국을 시킬 때 매번 받을 수 있는 버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 버전을 먹게 될 때면, 저와 함께 먹는 사람들로 부터 제가 어떻게 이 버전의 해장국을 이렇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특유한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요리를 서너 번쯤 먹었을 때, 저는 또다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이 붉은 재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었거나, 이 기간 동안 제 언어 이해력이 약간 향상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것이 "붉은 두부"라고 설명해 주었더니 그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붉은 두부'라는 개념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참신한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저에게 이 붉은 덩어리에는 사실 어떤 종류의 콩도 들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피였습니다. 소의 피가 응고되어 이 붉은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 순간은 문학이나 영화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을 수 없는 전환점. 제가 엄청나게 즐기던 이 요리의 개념과 정의가 순식간에 바뀌었으니까요. 몸과 마음의 상호 관계를 실감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몸으로는 즐기던 음식이 정신적으로 처리한 무언가에 의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를 먹는다는 생각은 제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뱀파이어와 드라큘라가 우리 성장의 일부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리에서 피는, 섭취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실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슬프게도, 제가 한때 엄청나게 즐겼던 이 요리는 절대 그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매혹적으로 느꼈던 그 가루 같은

식감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건 피가 응고되는 느낌이었을까요? 그 과정이 가루 같은 질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줄리어스 시저처럼, 저도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Haejang-guk/해장국 was something I had never experienced in America. For the most part, Korean dishes in America were somewhat standardized from city to city and restaurant to restaurant. I think part of it was materials for meal prepar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importing certain ingredients was just an immense challenge. So there were some dishes that, although mainstream here in Korea, were few and hard to find in America. Haejang-guk/해장국 was one of them. And I still remember the first time I had it when I arrived in Korea. It was super savory. Spicy and rich. It tasted wonderful. It was kind of like a harder, edgier version of Doenjang-guk/된장국, the much more mainstream, soybean based soup that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It felt more punk rock to me. Soup that smacks you in the face.

Haejang-guk/해장국 comes in a wide variety of incarnations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ingredients. My introduction to this dish had in the middle of it a large burgundy or red colored mass. Almost brick like and square, this mass was sitting right in the middle and looked like a small island. I was first introduced to this mass as "red tofu". Or at least this was all I could gather or understand from the explanation I received. From the little bits and fragments I could understand with my level of comprehension, this was the one sentence I could pull from the introduction of this dish. "Red tofu". And perhaps it was the thought of tofu being red, or just tofu in another color. Everything about this seemed fantastic to me. I thought perhaps this could have been tofu that was based upon red beans or kidney beans, which obviously were very common in America. I thought to myself, "What a fantastic combination. What a new combination.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tofu in Korea was truly fascinating". And so I ate this with great pleasure. It did have a

tofu texture but it felt strangely slightly drier. The density of it was both thicker and stronger but the way that it dissolved felt more like a drier material. Almost powder-like. And this almost powder-like nature was what fascinated me. How could something like this, which was obviously massed together and also sitting in a soup, maintain a powder-like disposition? It just did not make sense. In a good way. The results were magnificent to me. It was tofu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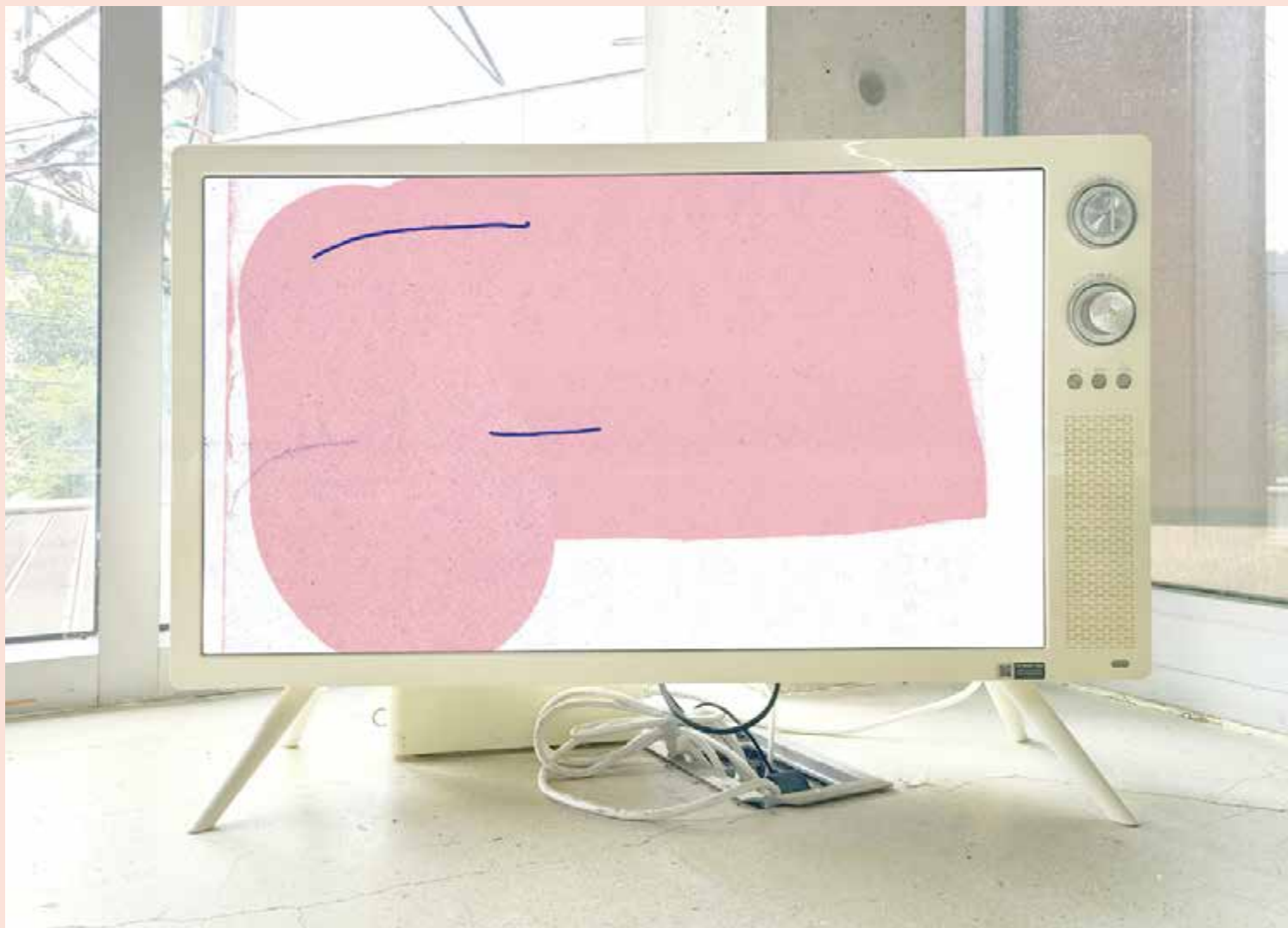
My interactions with Haejang-guk/해장국 was not so frequent. It was not necessarily a dish that could be found on every corner. And with my few social interactions at the time, not exactly a dish that people went to eat in groups. For whatever reason it also felt more like a man or male type of dish, meaning I typically ate this with a bunch of guys and when I looked around, it was mostly other guys eating this. It had been explained to me that most of these places were open late or even twenty four hours and that sometimes the pure intention of eating this soup was to accelerate hangover healing. Or something like that. I did notice that the red mass version of Haejang-guk/해장국 was not the version I would receive every time. But when I did eat it, there was always a particular curiosity from those that I was eating with about how I was able to so thoroughly enjoy this ver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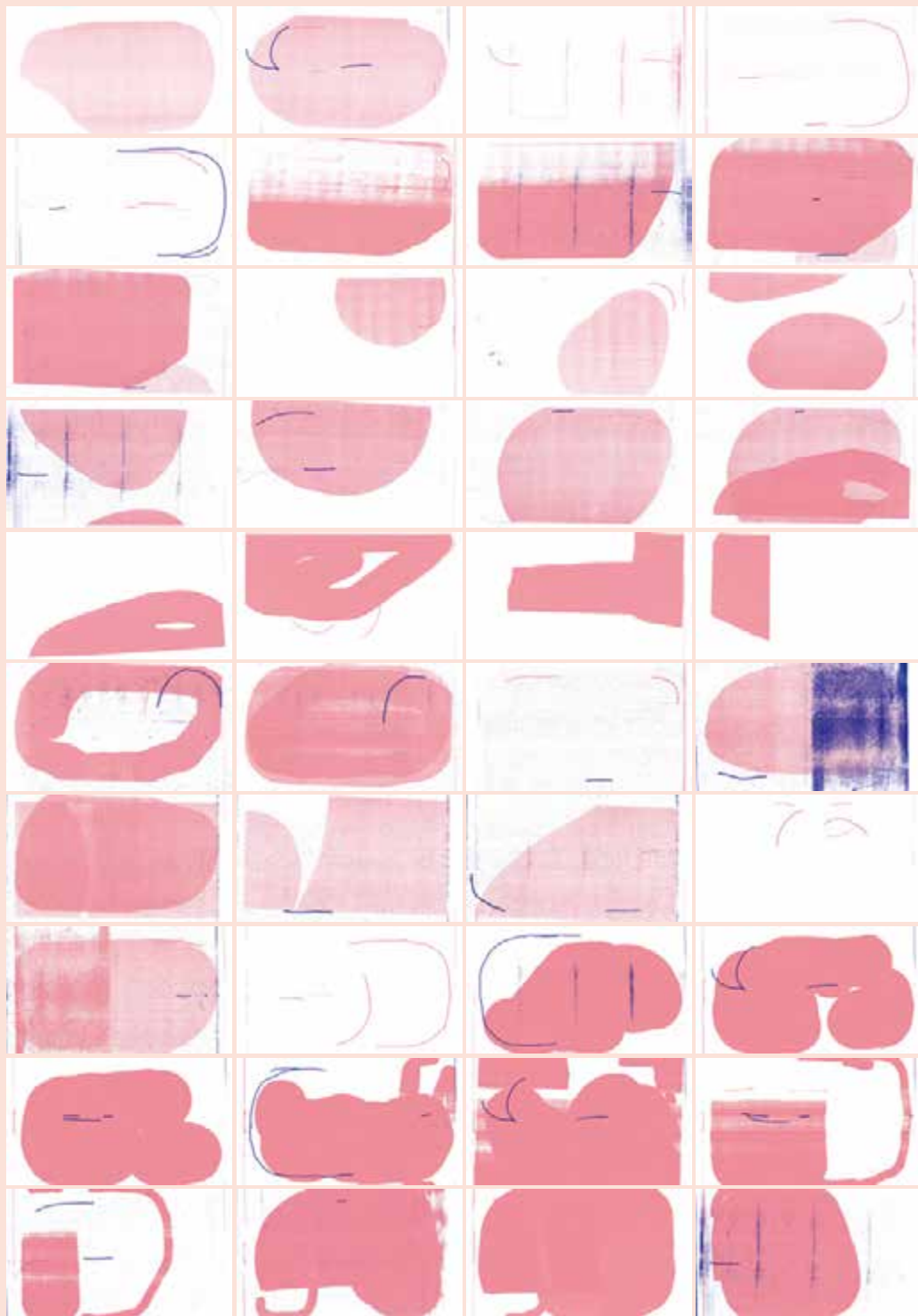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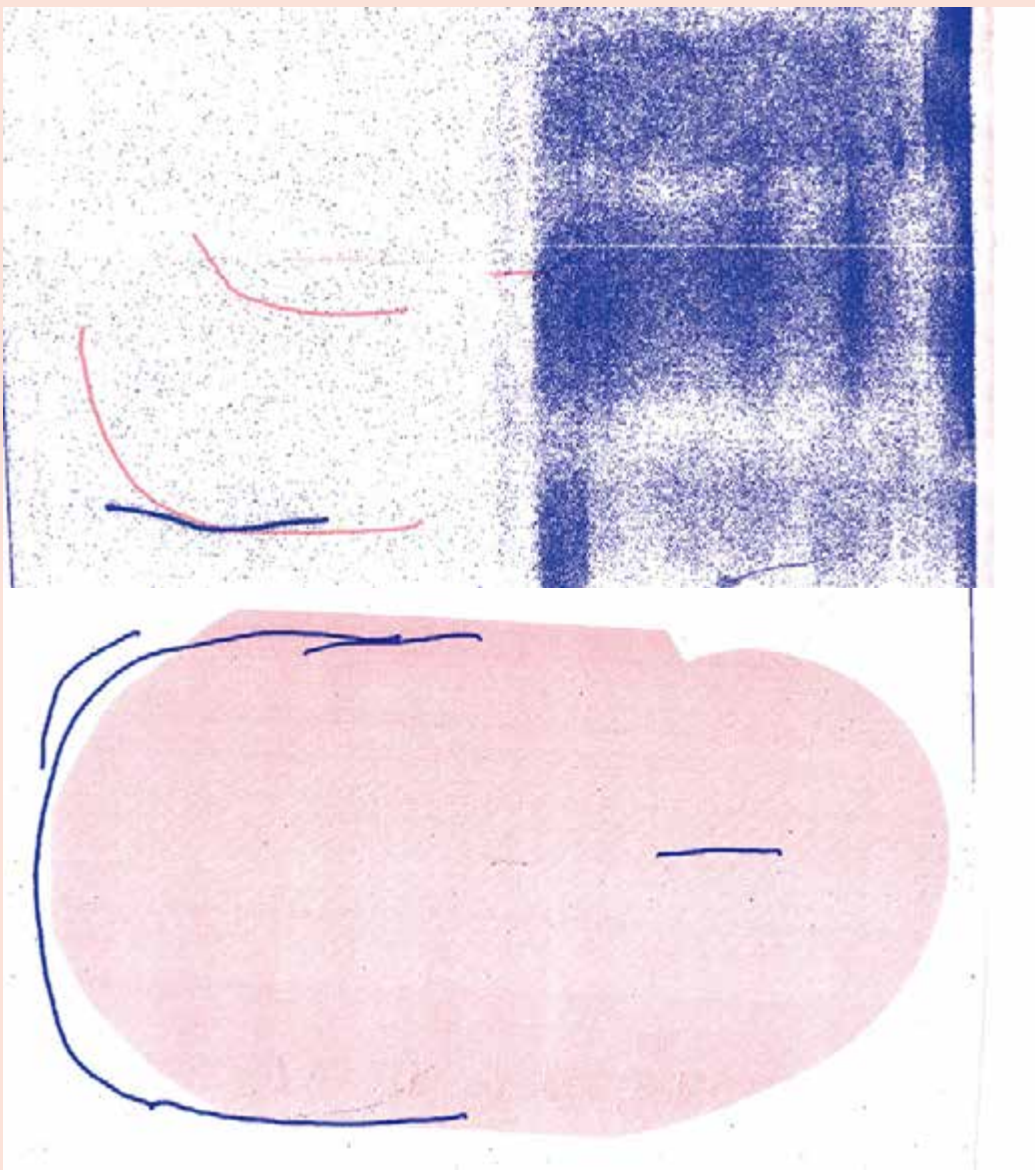
Probably the third or fourth time of eating this dish, I was again with a group of older men. And one of them that day had explained to me the ingredients of this red mass. Perhaps he had explained it in a simpler way or my language comprehension had slightly improved during this time. I had explained to him that it had been explained to me that this was a “red tofu” and he lost it. He had never heard anything so preposterous. He thought it was both ridiculous and something new to him, this concept of “red tofu”. He just lost it. He then explained to me that this red mass was actually not based on any beans of any kind. But it was actually blood. The blood of a cow that had been congealed together to form this red mass. Looking back now, this was one of those moments that in literature or film, one might call a turning point. A point where things can never be the same again. This dish that I had been enjoying immens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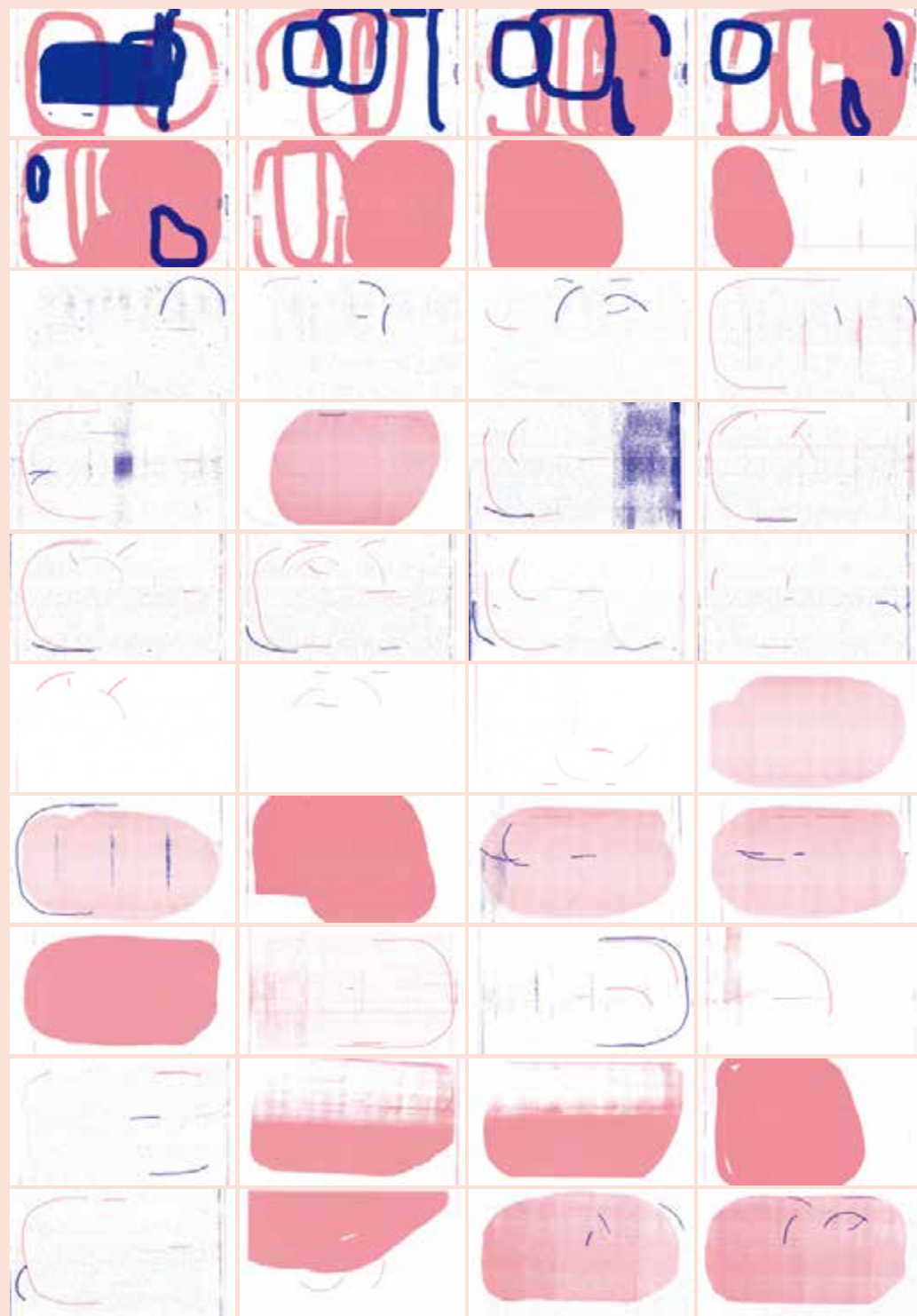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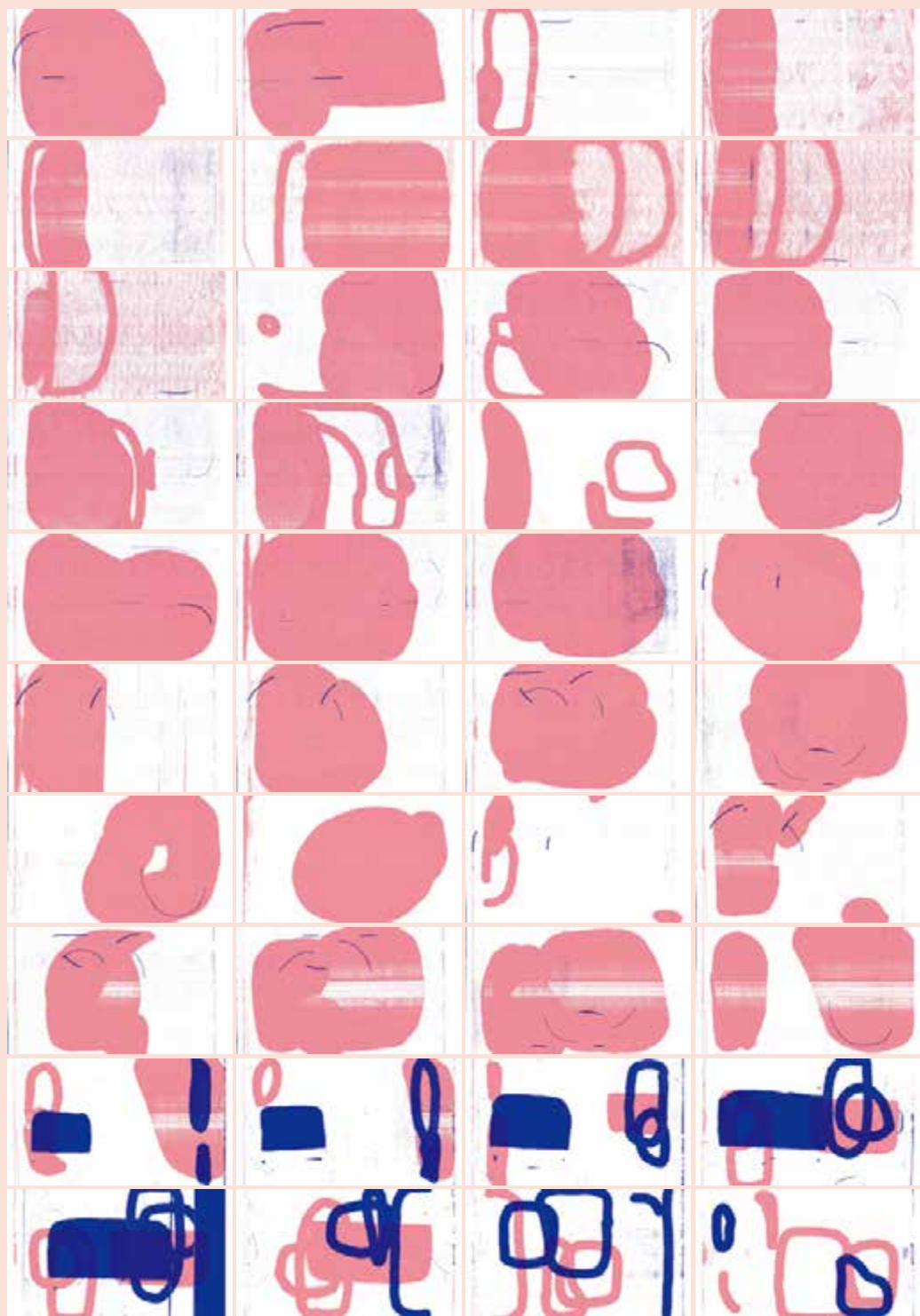
had somehow changed its concept, its definition within an instant. It was here that the mind/body dynamic became real for me. Something that I had been enjoying with my body had suddenly changed due to something that I had processed mentally. I’m not sure what it is, or what it was. But the idea of consuming blood was something that I could not process. It is a concept that still remains somewhat difficult to navigate for me. I grew up in America. A place where vampires and Dracula were part of our upbringing. And in our dishes, the concept of blood as something to be consumed did not exist. Never had existed. And so sadly, this dish that I had once enjoyed immensely would never return to that state. That powder-like texture that I had found fascinating had taken on a new meaning. Was this the sensation of blood congealing? Was this process what created this powder-like texture? Similar to Julius Caesar, I had now crossed the Rubicon river. There was no going back.



Hearing The Things That May Not Have Been Said, 79 x 55cm, Acrylic on Acrylic, 2023







7장.

내 남자 가슴에 드리워진 그림자.

Chapter 7.

The Shadow Cast From My
Man Boobs.

어느 순간부터, 저는 상당히 마른 사람에서 다소 통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정확히 과체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마른 체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건강에 좋지 않은 요리 방법과 재료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달걀 프라이, 치즈, 라면... 이 시점부터는 모든 식단과 관련된 것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외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어쩌면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신진대사가 더 성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 식단의 대부분은 항상 두부와 닭가슴살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두 가지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스스로 납득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국에서의 성장과 미디어의 영향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음식들에 대한 무언가가 저에게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두부와 닭가슴살을 섭취해 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두부에 다량의 에스트로겐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많은 양의 두부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남자가 가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닭 가슴살에도 같은 효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먹기에 더 통통하게, 닭의 가슴살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닭가슴살을 만들 때 일종의 화학적 강화 과정을 거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학 물질의 특성 또한 남성 가슴의 성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남자 가슴. 짐작할 수 있듯, 저는 남자 가슴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자랑스러워 한 적은 없습니다. 제 남자 가슴은 특정 종류의 티셔츠를 입을 때 특히 눈에 띄니다. 티셔츠의 색상과 조명 조건에 따라 항상 제 남자 가슴에 약간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 그림자들은 제 남자 가슴 바로 아래에 희미하지만 작은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티셔츠는 이러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의 완벽한 표면이자 무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남자 가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 나는 그들이 거기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것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진정으로 제 식단 때문일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건강상태가 별로라서 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괜찮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때로 전 그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종의 ‘형(나이 많은 남자 손윗사람)’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버지가 장남인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맏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맏이였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형’ 같은 존재를 많이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형’으로 불리기를 원하거나 그런 관계의 역학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간혹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주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형’이라는 관계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이 스펙트럼 위에서 조금씩 다르게 존재합니다. 이 ‘형’들은 각자 조금씩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저와의 관계, 저에 대한 생각 또한 모두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형’ 그룹은 다른 대부분의 ‘형’ 모습들과는 다른, 약간 더 감정적인 형태의 ‘형’ 그룹이었습니다. 감정이 많으면 논리가 조금 떨어지죠. 어쩌면 더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더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형/동생 관계도 이 그룹에서는 더 특징적으로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놀림이 조금 더 많습니다. 유머가 조금 더 많습니다. 비판과 풍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쩌면 전반적으로 이러했던 ‘형’ 그룹이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좋으면서도 드문 일이었죠.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어떤 종류의 형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 ‘형’ 그룹은 특별히 다르게, 더 형제애가 느껴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형’ 그룹보다 저에게 훨씬 더 애정이 많았어요. 제 등을 두드려주거나. 제 팔을 잡습니다. 제 목을 잡습니다. 제 어깨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 근육 밀도를 확인하듯 손으로 꺾 누르기도 합니다. 가끔 옆자리에 앉으면 제 허벅지를 잡기도 해요. 또는 제 허벅지를 손으로 누르며 비슷하게 근육 밀도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부적절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때때로 제 기분을 편치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제 허벅지를 처음 잡았을 때, 아마도 제 인생에서 누군가가 제 허벅지를 잡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제 온 몸은 죽은 물고기처럼 굳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겁이

났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혀 부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다시 말하면, 역시 제가 익숙하거나 편안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러한 ‘형’ 유형 중 한 명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기억이 납니다. 이런 ‘형’ 그룹에게 술은 꽤 친근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술이 때때로 당신과 당신의 영혼을 다른 차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차원에 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을 만큼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는 제 가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픽이 없는 무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가 주량을 초과해 마신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술에 취해 그 너머의 세계에 있었을지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언제나 그랬듯이, 친근하게. 그는 나를 팔로 감싸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그런데 그의 손은 돌아서서 제 남자 가슴 하나를 잡았습니다. 아마도 야구공을 잡는 손과 비슷했을 거예요. 아니면 믹싱 다이얼을 쥐는 디제이처럼요. 그는 손을 뺀 제 남자 가슴을 오므려 감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진정하게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애 첫 경험이 그렇듯,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역시 완전히 부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건가요? 술 취한 상태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행동은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네 부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왠지 슬펐어요. 하지만 이 불편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슬픔은? 실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남자 가슴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일까요? 내 남자 가슴이 실제로 거기에 있었고, 존재감을 가졌다는 사실, 내 남자 가슴이 시각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 가슴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렇게 눈에 띄었나요? 손이 자석처럼 움직일 정도로? 저는 남자 가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들이 거기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At a certain point in time, I had transformed from a fairly skinny person to a somewhat plump person. Not exactly overweight. But definitely not skinny. I think this transition happened when I had developed some unhealthy cooking methods and ingredients. Fried eggs, cheese, ramen, etc.. From this point on, all things dietary seemed like a struggle. I had to watch what I was eating otherwise it would directly affect my appearance. Perhaps it was not only diet, but my metabolism had probably just become more adult. Regardless, it was something I was having to deal with more than any point prior to that in my life. Perhaps for these reasons, a large part of my diet has always been tofu and chicken breast. I had at some point been convinced that these foods were somewhat healthier than other foods. Perhaps it was my American upbringing and media influence, but something about these foods just felt right for me. For these reasons, since I can remember, I have been consuming extremely large quantities of tofu and chicken breast.

I was told at a later age that tofu actually has large amounts of estrogenic properties. Meaning, that man boobs could form from the mass consumption of tofu. I was also told at a later age chicken breast had some of the same conditions. How does one make the breast of a chicken bigger? More plump for human consumption? I was told that some kind of chemical enhancement process was part of the chicken breast preparation. And I was also told that these chemicals and properties could also enhance the growth of man boobs.

Man boobs. As you may guess, I do have man boobs. Not particularly large ones. Not particularly shameful ones. But nevertheless they are there. And they are not something I have ever been proud of. My man boobs are particularly noticeable when wearing certain kinds of t-shirts. Depending on the color of the t-shirt and the lighting conditions, there is always a slight shadow that is cast from my man boobs. These shadows form slight triangular shapes that exist directly in the region underneath my man boobs. And the t-shirt is almost the perfect surface and stage for these shadows to exist. Again, I am not ashamed of these

man boobs. But I do sometimes wish they were not there. Or that I did not have to worry about them. I sometimes wonder if it truly is my diet that has created these. Or if it is my lack of health. But I am okay with them. They have been there for so long. I am okay with them. But again, I do wish they sometimes were not t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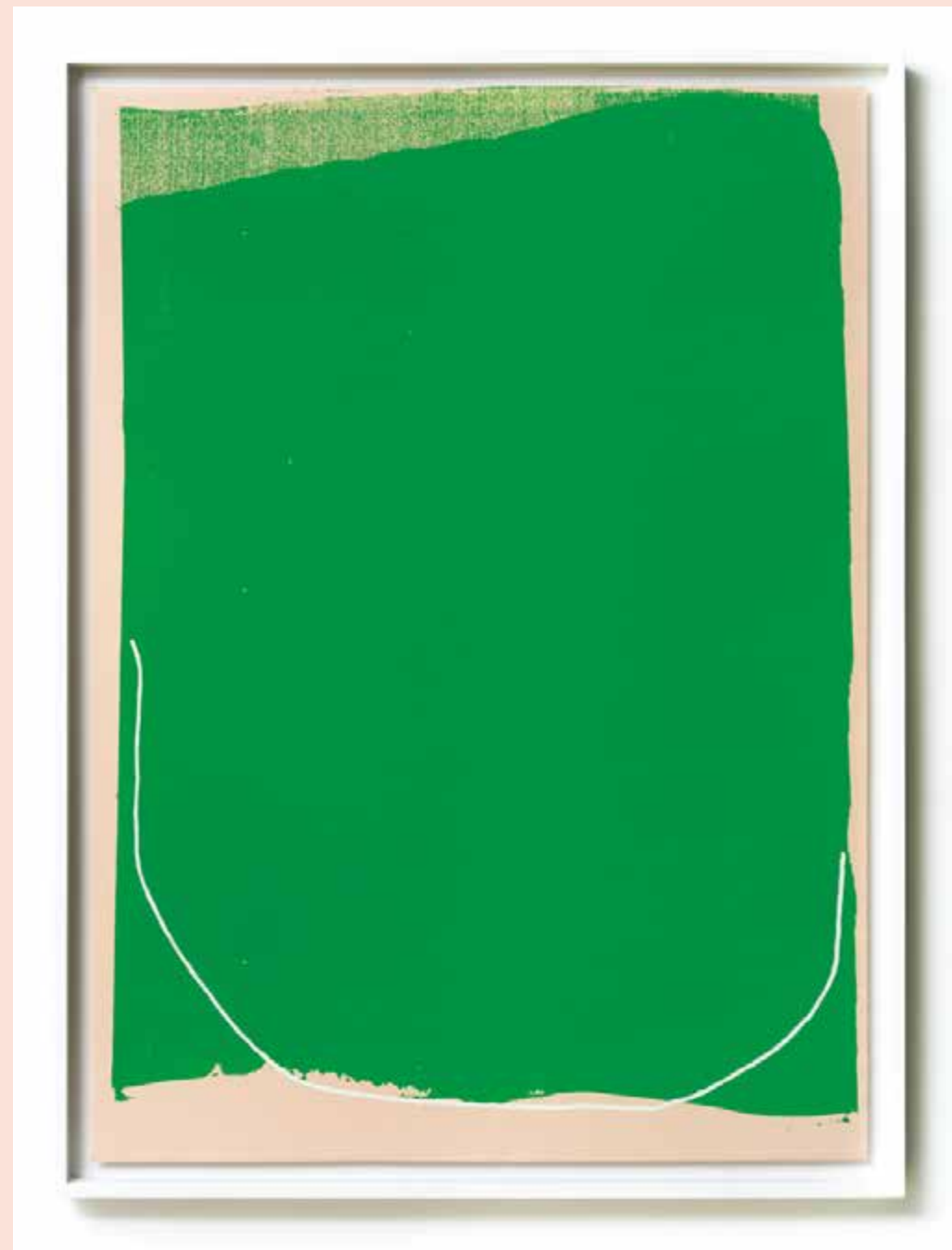
In Korea, I experienced a kind of “hyung/형 (older brother)” culture that I had not experienced in America. For one thing, I was the first born in a family where my father was the first born. I was always the oldest. Always the oldest, everywhere I went. And for this reason, I never really had many “hyung/형” type figures in my life. Secondly, as a Korean American, we just did not have this kind of culture. Of course, there would occasionally be slightly more Koreanized Korean Americans who would sometimes wish to be called “hyung/형” or preserve such relationship dynamics. But this was few and far between. Here in Korea, things were different. Quite different. And until this point in time I have experienced a wide variety on the “hyung/형” relationship spectrum. Every relationship on this spectrum exists a little differently. Each one of these “hyung/형” figures thinks a little differently. And their relationship towards me or thoughts towards me all differ as well.

There is a particular “hyung/형” group here in Korea that I would observe as slightly more emotional than most other “hyung/형” figures. And with more emotion comes a little less logic. Perhaps more feelings. Perhaps more subjective. The younger brother/older brother dynamic is also more alive in this group. There is a bit more teasing. A bit more humor. A bit more criticism and sarcasm. Perhaps all in all, this group of “hyung/형” figures felt at the core, a bit more human to me. Which has been both nice and rare. I am not sure what they think of me. If they do perceive me as a brother of some kind? But there are certain moments that I have noticed as particularly different and perhaps more brotherly than not. They are far more affectionate towards me than any other “hyung/형” group I have experienced so far. There is a lot of patting my back. Grabbing my arm. Grabbing my neck. Grabbing my shoulder. And then pressing in

with the hands as if to check my muscle density. Sometimes if we are sitting next to each other, they tend to grab my thighs. Or putting their hands on my thighs and similarly checking the muscle density. It is not particularly inappropriate. But if I can be truthful, it does not make me feel comfortable at times. I remember when they first grabbed my thigh, it was probably the first time in my life anybody had grabbed my thigh. And when they did, my whole body stiffened up like a dead fish. I suddenly became petrified. Again, not entirely inappropriate behavior by any means, but again, not something I am entirely familiar or comfortable with as well.

I remember one evening, one of these “hyung/형” type figures had consumed a larger amount of alcohol than usual. Alcohol was also something that this “hyung/형” group was quite friendly with. They were emotional people who were open to the places alcohol can sometimes take you and your soul. He had consumed enough where it was visibly noticeable that he was not entirely there. At one point in the evening, I could feel his stare. However, he was not looking at me. Or my face. He was looking at my chest. I was curious what he might be looking at? I had just a plain shirt on with no graphics. But I did not think much of it and thought to myself, he perhaps had drunk past his normal capacity. Perhaps he had gone to that place. When we finished for the evening and began saying our goodbyes, he came up to me. Friendly, as he always was. He put his arm around me and hugged me. Friendly, as always. But then his hand actually came around and grabbed one of my man boobs. Perhaps similar to a hand grabbing a baseball. Or like a dj reaching for knobs. The hand had extended and cupped my man boob. This was a first for me. A true first in my life. And as with any kinds of lifetime firsts, a rush of thoughts passed through my mind. This was again not entirely inappropriate. Or was it? Drunkenness aside, such behavior could make anyone uncomfortable. It was inappropriate. And here again, I did feel uncomfortable. And somehow sad. But where was this uncomfortableness? Or sadness? Was it the actual act itself? Or was it perhaps the acknowledgement that I did have man boobs.

And that my man boobs were there and actually had presence. And that my man boobs had actual visual presence? Was the shadow that was cast from them that prominent? Prominent enough to move hands like magnets? I know I have man boobs. I do not mind them. I am not ashamed of them. But again, I wish they were not there.



Making Somewhat Burdensome Friends,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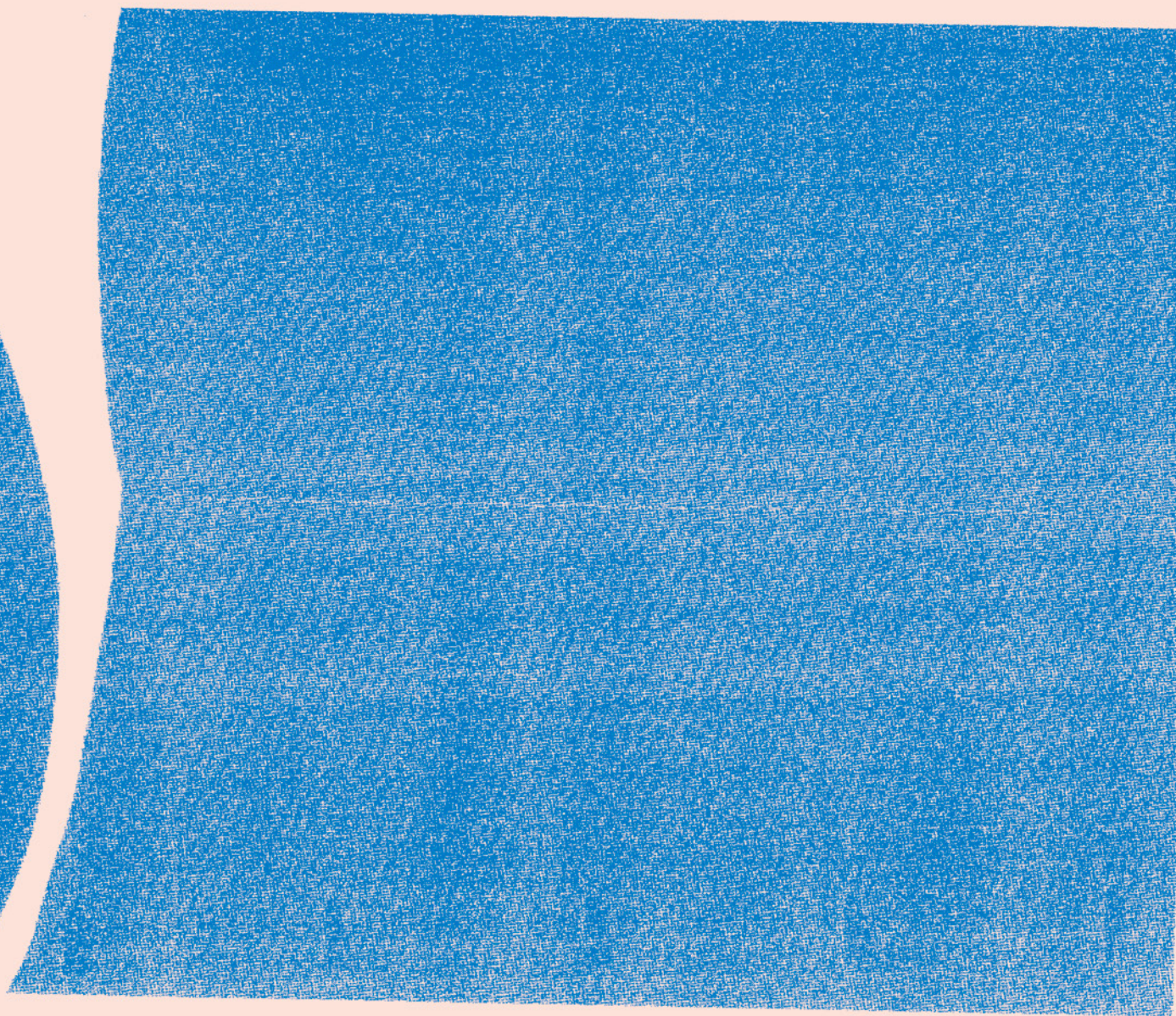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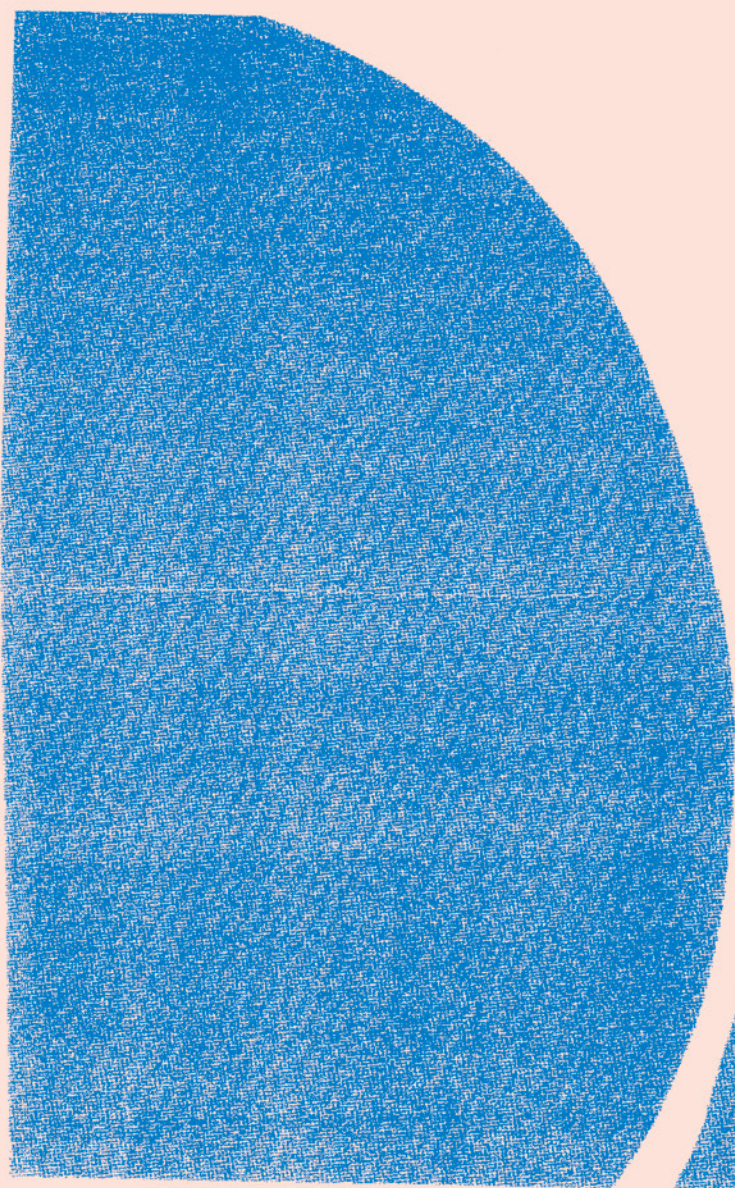
I Choose Not To Let My Circumstances Persuade Me
Instead I Choose To Persuade My Circumstances
45 x 37cm, Acrylic on Acrylic, 2023



Fear Of Speaking Of The Things I Wish For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Spending Hours With The Unapologetic, 109.9 x 78.8cm, Acrylic on Paper, 2023



Space
Pyeong Sang
Interphones
Surfaces

Never In A Month Of Sundays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The Father Who Would
Eventually Name
His Child Dude
2023, 56 × 39.5cm
Acrylic on paper.

My Heart Sometimes
Receive Good Care
From Others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Becoming A Better,
More Obliging Person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1장. Chapter 1.
침묵에 귀 기울이기. 침묵 듣기.
Listening To Silence. Hearing Silence.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en
2022, 56 × 39.5cm
Acrylic on paper.

Fear of Speaking
Of The Things I Wish For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Friends Of Friends Of Friends
2023, 125 × 92cm
Acrylic on acrylic.

I Choose Not To
Let My Circumstances
Persuade Me
Instead I Choose To
Persuade My Circumstances
2023
54.5 × 40cm
Acrylic on acrylic.

2장. Chapter 2.
품질이라는 이름의 현지 요리 주문하기.
Ordering A Local Dish Called Sold Out.

A Hundred Million Miles From Here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3장. Chapter 3.
한 시간 동안 지속되는 14분 회의.
Fourteen Minute Meetings
That Last For One Hour.

Spending Hours
With The Unapologetic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Being Called
Every Name In The Book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Pale At The Thought
2023, 63.5 × 44cm
Acrylic on acrylic.

Believe Nothing Of What You Hear,
And Only Half Of What You See
2023, 30", Single Channel Video

Being Light Hearted With A Heavy Heart
2023, 125 × 92cm
Acrylic on acrylic.

5장. Chapter 5.
곰과 호돌이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을 때.
When A Bear and Hodori
Ate Garlic And Made People.

When Silence Can Be Heard
And Then Hearing
All The Things
Silence Might Say
2023
56 × 39.5cm
Acrylic on paper.

6장. Chapter 6.
붉은 두부.
A Red Tof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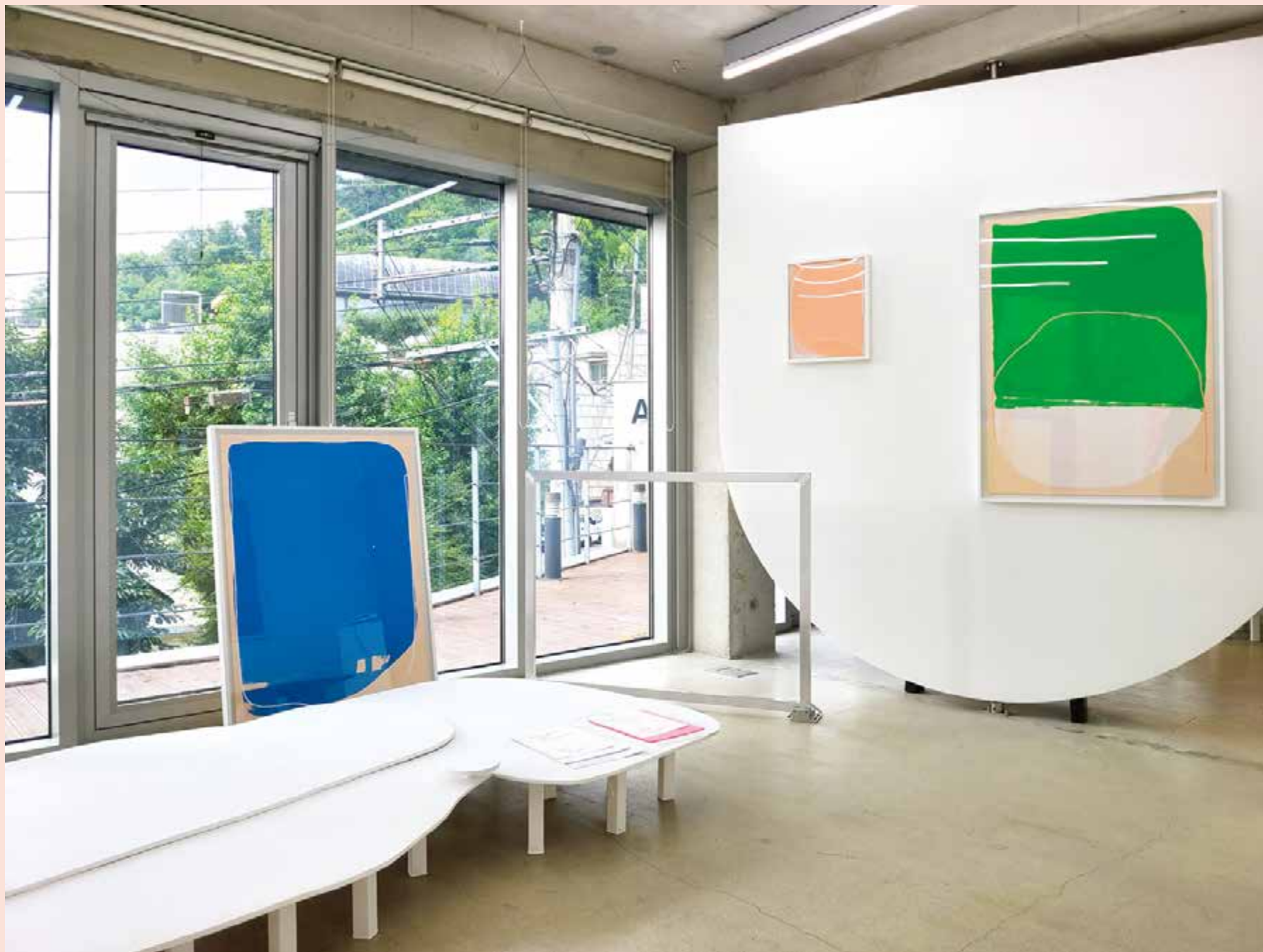
7장. Chapter 7.
내 남자 가슴에 드리워진 그림자.
The Shadow Cast From
My Man Boo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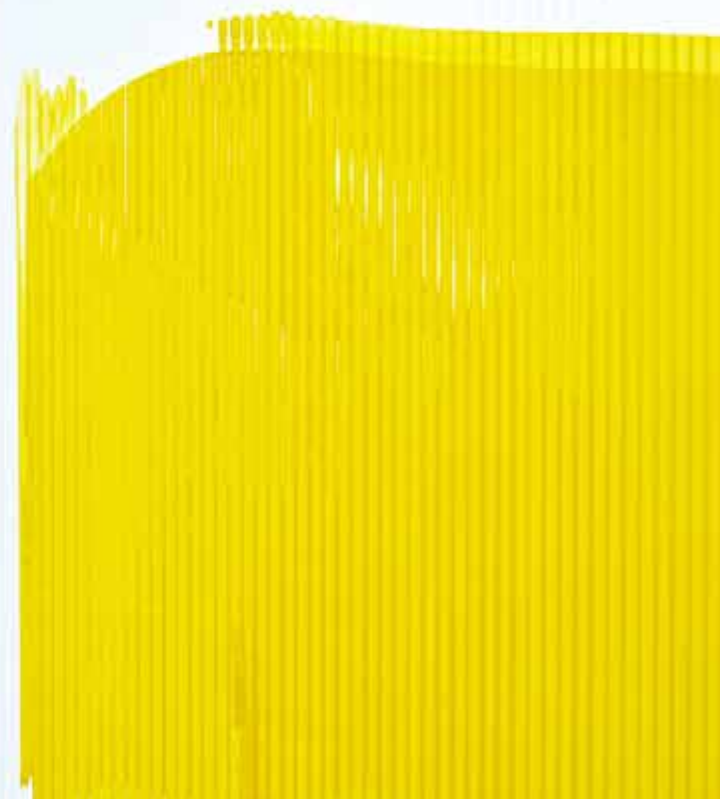
Understandable misunderstandings
2023, 71 × 48.5cm
Acrylic on acrylic.

4장. Chapter 4.
통닭 한 마리 주문하고 혼자 먹기.
Ordering Whole Chickens
and Eating Them
All By Myself.

Words That Perhaps
Are Uttered And Not Spoken
2023, 54.5 × 39cm
Acrylic on paper.

Making Somewhat
Burdensome Friends
2023, 109.9 × 78.8cm
Acrylic on pa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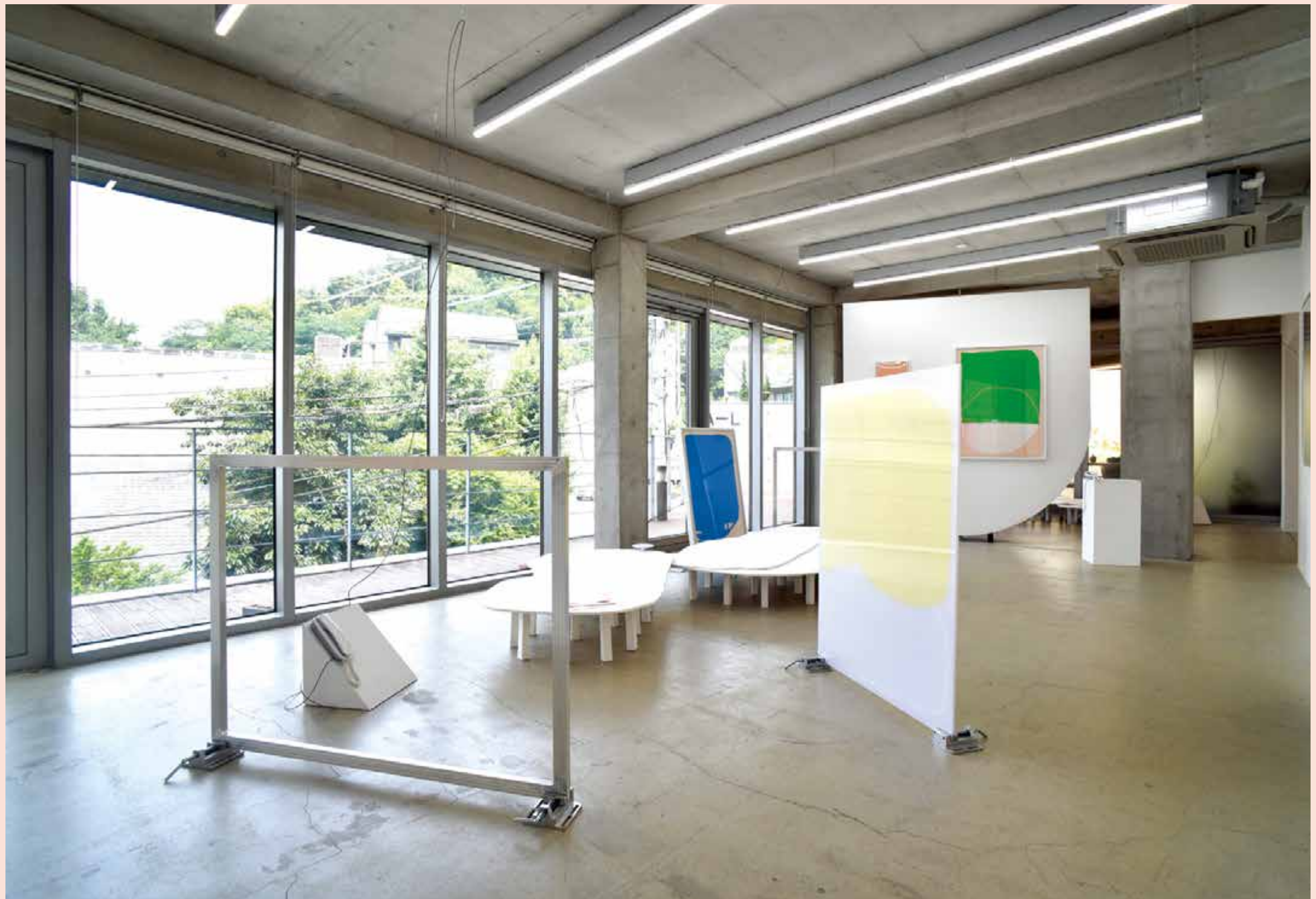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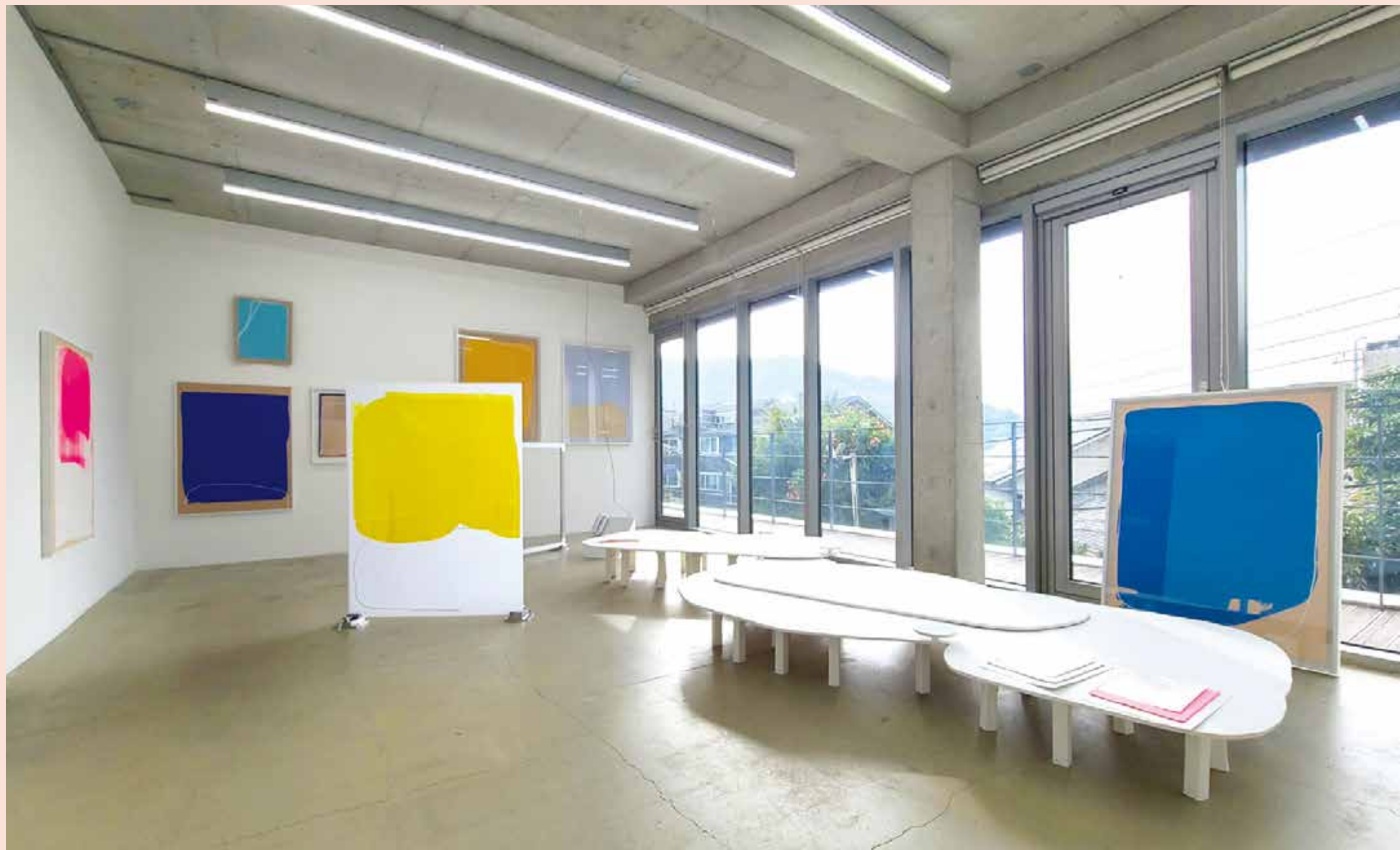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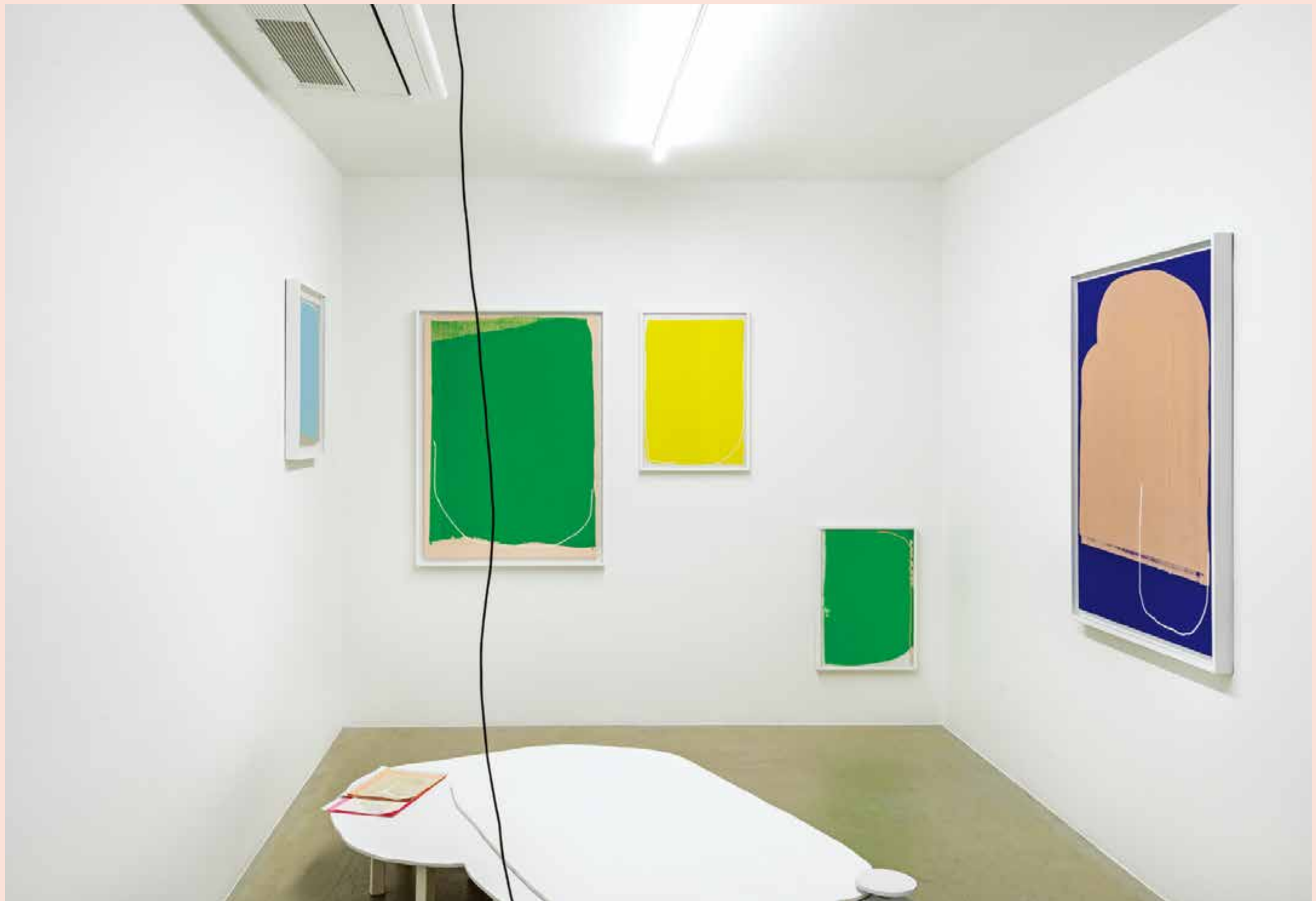












Curriculum Vitae Exhibition Catalog Information

Chris Ro 크리스 로 (b.1976)

크리스 로(b.1976)는 디자이너이자 그래픽 아티스트다. 시애틀에서 태어난 크리스 로는 UC 버클리에서 건축을,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RISD)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함부르크, 베를린과 뉴욕에서 활동하다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서 서울에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한국에 온 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공간 개념을 탐구하는 그래픽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건축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혼성된 경험은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며 탐색하는 그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의 작품은 움직이고 공간을 활용하며 시적이고 분위기를 자아내는 특성을 지니는데, 다른 차원에서의 움직임과 공간의 개념이 평면이라는 보다 정적인 표면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빅토리아&알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파리 장식 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뮌헨 국제디자인박물관(Die Neue Sammlung)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 한국수자원공사, 플랫폼엘,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에 영구소장 되었으며 전시되고 있다. 그는 현재 AGI(Alliance Graphique Internationale)멤버이다.

Education

1999 건축학 학사,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2008 그래픽 디자인 미술 석사 (총장 장학생),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2018 서울대학교, 디자인 박사

Solo Exhibitions

2023 «조용한 웃음», 에이라운지, 서울, 대한민국
«도둑은 도둑을 알고 늑대는 늑대를 알듯이 돌은 돌을 안다», Shhh 프로젝트, 인천, 대한민국, 뉴 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2021 «우리 같은 도둑들», d/p, 서울, 대한민국
2019 «고요한 심장», 17717, 서울, 대한민국

Group Exhibitions (selected)2023

«사이의 리듬들»,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환영 대 환영», 돈의문 박물관 마을 미디어 파사드, 서울, 대한민국
«House of Sylvie», 메종 갤러리아, 대전, 대한민국

2022

«Narrative on Medium», Space B-E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hick As Thieves», 라인 호텔(Line Hotel), 로스앤젤레스, 미국
«BETWEEN», DH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새로운 시대의 항구», 인천국제공항, 인천, 대한민국
«마스 그린 x 오렌지 디스트릭트», 오렌지 디스트릭트, 서울, 대한민국

2021

«Venice Biennale: BIENNALE ARCHITETTURA 2021», 베니스, 이탈리아
«땅따먹기»,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동해 국제 아트 프리 비엔날레 2021», 동해, 대한민국
«We, Ourselves and Us», 웰트포맷(Weltformat), 루체른, 스위스
«난징 국제 평화 포스터 비엔날레 2021», 난징, 중국
«100 영화, 100 포스터», 전주 국제 영화제, 대한민국 전주
«UNPARASITE», 플랫폼엘, 서울, 대한민국
«Free Laundry», Meurice 59, 이스트햄튼(Easthampton), 미국
«Unrealized Archive 4», IF/THEN Studio, 버클리, 미국
«골목전 7», 팔레 드 서울, 서울, 대한민국

2020

«밀도와 파도 사이», 소공헌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감염과 면역»,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67890», 17717, 서울, 대한민국
«Writing, Writing», ALPHABETUM VII, 덴하그(Den Haag), 네덜란드

2019

«고요한 심장», 17717, 서울, 대한민국
«모노크롬 쇼», 한국국재교류재단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페이지 II», MICA 브론즈 갤러리, 볼티모어, 미국
«Future Design Workshop», 라이즈 호텔, 서울, 대한민국
«The Museum and Restaurant: Figures, Tables, Exhibits», 17717, 서울, 대한민국
«난징 포스터 비엔날레», 난징, 중국
«As We Speak», 뽀또블루, 서울, 대한민국
«서울세계불꽃축제», 한강공원, 서울, 대한민국

2018

«The Dolby Art Series», 돌비 갤러리(Dolby Gallery), 샌프란시스코, 미국

«Typo–Poetry», OCAF 홀 갤러리, 아테네, 미국	«숨씨»,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서울, 내일 만나요, 평양»,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대한민국	«아이 러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대한민국
«El Otro Lado», 스페인문화원(Centro Cultural de Espana), 멕시코 시티, 멕시코	«27th International Biennial of Graphic Design Brno 2016», 모라비안 갤러리(Moravian Gallery), 브르노(Brno), 체코
«타이포그래피와 홍익», 홍익대학교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u>2015</u> «타이포잔치 2015: C() T()», 문화역서울 284, 서울, 대한민국
«49 Match day Poster», Verein Tschutti-Heftli, 루체른, 스위스	«대화», 대화문화아카데미, 서울, 대한민국
«타이포그래피와 사진의 만남»,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션 페스타 1», 갤러리 원, 서울, 대한민국
«Unrealized Archive 2», Institute of Advanced Uncertainty, 샌프란시스코, 미국	«Korea Now! Graphisme Mode», 파리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파리, 프랑스
«시와 타이포그래피 잔치», 파주타이포그래피배그, 파주, 대한민국	<u>2014</u> «세계 문자 심포지아», 세종문화회관, 서울, 대한민국
<u>2017</u> «수행하는 문자, 문자의 수행자», 바라캇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Ink Village Gathering», 코너 스튜디오, 서울, 대한민국
«일러스트레이션 페스타 2017»,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프린팅 스튜디오 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타이포잔치 2017: 모옴(Mohm)», 문화역서울 284, 서울, 대한민국	<u>2013</u> «타이포잔치 2013: 슈퍼텍스트», 문화역서울 284, 서울, 대한민국
«Borders—Yesterday, Today, Tomorrow»,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파리, 프랑스	«Letterfirm», 리딩 프렌지 갤러리(Reading Frenzy Gallery), 포틀랜드, 미국
«성북 도큐멘타, 성북 한옥 연구 프로젝트», 성북 예술의 전당, 서울, 대한민국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2»,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Korea Design!», 국제디자인박물관(Die Neue Sammlung), 뮌헨, 독일	«실험적 타이포그래피 1», 명지 뮤지홀 서울, 대한민국
«훈민정음과 한글 디자인», 국립한글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u>2012</u> «포스트 텍스트», 삼원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다른 방식으로 읽기», 열화당 연꽃 갤러리, 파주, 대한민국	«Salon Fantastique de Risd», 915 인더스트리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훈민정음과 한글», 주일한국문화원, 도쿄, 일본	«오디오크래프트», 갤러리 가이아, 서울, 대한민국
<u>2016</u> «일러스트레이션 페스타 2», 두성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u>2011</u> «베일링 / 언베일링», 삼원페이퍼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he Messag:e»,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ypeface», 더 콜리드 팩토리(The Collide Factory), 플로리다, 미국

2010

«Transmission», 현대미술연구소 갤러리(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Gallery), 싱가포르

«Mannam(만남)», Project 8B, 뉴욕, 미국

Collections

빅토리아앤알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런던, 영국

장식미술관(Musée des Arts Décoratifs), 파리, 프랑스

국제디자인박물관(Die Neue Sammlung), 뮌헨, 독일

국립 한글 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Letterform Archive, 샌프란시스코, 미국

Residencies

오티스 예술 디자인 대학, 미국 로스앤젤레스, 2023

경주 레지던시 페스타, 경주, 대한민국, 2021

버몬트 미술대학, 몽펠리에, 미국, 2014

Press

『도둑은 도둑을 알고 늑대는 늑대를 알고 돌은 돌을 아는 것처럼』, 2023

『우리 같은 도둑』, 2022

Chris Ro(b.1976)

Chris Ro(b.1976) is a graphic designer and artist. His work can be characterized for their kinetic, spatial, poetic and atmospheric properties. Born in Seattle, Chris went on to study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fter working as both architect and designer he went on to study graphic design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This mixed background continues to influence his explorations that fluctuate between both two and three dimensions. He is often at home when exploring concepts in motion and space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 more static surfaces of graphic design. He recently finished research exploring concepts in Korean spa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work has been exhibited all over the world and is part of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Victoria and Albert Museum, Musée des Arts Décoratifs, Die Neue Sammlun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Hongik University Museum of Art,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and the National Hangeul Museum. He is a member of the Alliance Graphique Internationale.

Education

1999 Bachelor of Arts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008 Master of Fine Arts in Graphic Design
(President's Scholar),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2018 Doctorate i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lo Exhibitions2023

«Silent Laughter», A-Lounge, Seoul, South Korea
«A Thief Knows A Thief Like A Wolf Knows A
Wolf Like A Stone Knows A Stone»,
Shhh Project, Incheon, South Korea, NEW
SPACE, Seoul, South Korea

2021

«Thieves Like Us», d/p, Seoul, South Korea
2019
«Heart Stands Still», 17717, Seoul, South Korea

Group Exhibitions (selected)2023

«A Place Between Rhythm and Rhythm», Choi
Man Lin Museum, Seoul, South Korea
«Host and Ghost», Donuimun Museum Village
Media Façade, Seoul, South Korea
«House of Sylvie», Maison Galleria,
Daejeon, South Korea

2022

«Narrative on Medium», Space B-E Gallery,
Seoul, South Korea
«Thick As Thieves», Line Hotel,
Los Angeles, USA
«BETWEEN», DH Gallery, Seoul, South Korea
«Port to The New Era»,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South Korea
«Mars Green x Orange District», Orange District,
Seoul, South Korea

2021

«Venice Biennale: BIENNALE ARCHITETTURA
2021», Venice, Italy
«땅따먹기», Doosung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East Sea International Art Pre-Biennale 2021»,
Donghae, South Korea
«We, Ourselves and Us», Weltformat,
Lucerne, Switzerland
«Nanjing International Biennial of Poster for
Peace 2021», Nanjing, China
«100 Films, 100 Posters»,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South Korea
«UNPARASITE»,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Free Laundry», Meurice 59,
Easthampton, USA
«Unrealized Archive 4», IF/THEN Studio,
Berkeley, USA
«Golmok Exhibition 7», Palais de Seoul,
Seoul, South Korea
2020
«Between Density and Waves», Sogongheon
Gallery, Seoul, South Korea
«Infection and Immunity», Doosung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Not Only But Also 67890», 17717, Seoul,
South Korea
«Writing, Writing», ALPHABETUM VII,
Den Haag, Netherlands
2019
«Heart Stands Still», 17717, Seoul, South Korea
«Monochrome Show», Korea Foundation
Gallery, Seoul, South Korea
«Phase II», Bronze Gallery in MICA,
Baltimore, USA
«Future Design Workshop», RYSE Hotel, Seoul,
South Korea

«The Museum and Restaurant: Figures, Tables, Exhibits», 17717, Seoul, South Korea
«Nanjing Poster Biennale», Nanjing, China
«As We Speak», Punto Blu, Seoul, South Korea
«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Hangang Park, Seoul, South Korea
2018
«The Dolby Art Series», Dolby Gallery, San Francisco, USA
«Typo–Poetry», OCAF Hall Gallery, Athens, USA
«Seoul, See You Tomorrow», Pyeongyang»,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South Korea
«El Otro Lado», Centro Cultural de Espana, Mexico City, Mexico
«Typography and Hongik», Hongik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49 Match day Posters», Verein Tschutti-Heftli, Lucerne, Switzerland
«Typography Meets Photography»,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Unrealized Archive 2», Institute of Advanced Uncertainty, San Francisco, USA
«Poetry & Typography Fest», PaTi, Paju, South Korea
2017
«Performing Letters, Performers of Letters», Barakat Gallery, Seoul, South Korea
«Illustration Festa 2017»,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Typojanchi 2017: Mohm»,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South Korea
«Borders—Yesterday, Today, Tomorrow», Cité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Paris, France

«Seongbuk Documenta, Seongbuk Hanok Research Project, Seongbuk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Korea Design!», Die Neue Sammlung, Munich, Germany
«Hangul Design: Prototypes and Future of the Korean Alphabet», National Hangul Museum, Seoul, South Korea
«Ways of Reading», Yeolhwadang Lotus Gallery, Paju, South Korea
«Hunminjeongeum and Hangul», Korean Cultural Center, Tokyo, Japan
2016
«Illustration Festa 2»,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Good Hands», Doosung In The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I Love Seoul», Dongdaemun Design Plaza, Seoul, South Korea
«27th International Biennial of Graphic Design Brno 2016», Moravian Gallery, Brno, Czech Republic
2015
«Typojanchi 2015: C() T()»,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South Korea
«Dialogue», Korean Dialogue Academy, Seoul, South Korea
«Illustration Festa 1», Gallery Won, Seoul, South Korea
«Korea Now! Graphisme Mode», Musée De Arts Décoratif, Paris, France
2014
«World Scripts Symposia», Sejong Arts Center, Seoul, South Korea
«Ink Village Gathering», Corners Studio, Seoul, South Korea
«Printing Studio Show», Korean Craft and Design Foundation Gallery

2013
«Typojanchi 2013: SuperText»,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South Korea
«LetterFirm», Reading Frenzy Gallery, Portland, USA
«Experimental Typography 2», Doosung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Experimental Typography 1», Myeongji Muse Hall Seoul, South Korea
2012
«Post Text», Samwon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Salon Fantastique de Risd», 915 Industry Gallery, Seoul, South Korea
«Audiocraft», Gallery Gaia, Seoul, South Korea
2011
«Veiling / Unveiling», Samwon Paper Gallery, Seoul, South Korea
«The Message», Korean Craft and Design Foundation Gallery
«Typeface», The Collide Factory, Miami Florida
2010
«Transmission»,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Gallery, Singapore
«Mannam», Project 8B, New York, New York

Residencies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Los Angeles, USA, 2023
Gyeongju Residency Festa, Gyeongju, South Korea, 2021
Vermont College of Fine Arts, Montpelier, USA, 2014
Publications
A Thief Knows A Thief Like A Wolf Knows A Wolf Like A Stone Knows A Stone, 2023
Thieves Like Us, 2022

Collections
Victoria & Albert Museum, London, UK.
Musée des Arts Décoratifs, Paris, France.
Die Neue Sammlung, Munich, Germany.
National Hangeul Museum, Seoul, South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South Korea.



고요한 웃음 Silent Laughter
2023.7.6—8.4

A—L

A-Lounge
Contemporary Art Space
에이라운지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45
2F, 45 Baekseok-dong 1ga-gil
Jongno-gu Seoul 03020
TEL +82 2 395 8135
www.a-lounge.kr

이 전시는 2023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3 Hongik University Research Fund.

©Chris Ro, A-Lounge
All rights reserved 2023.

Exhibition Planning
이승민 Seungmin Lee

Exhibition Assistant
최하림 Harim Choi
윤지호 Zieho Yoon

Text
크리스 로 Chris Ro
이성휘 Sunghui Lee

Translation/Editing
박고은 Goeun Park
이지원 Jiwon Yi
김연임 Yunim Kim

Photography
서종현 Jonghyoun Seo
류동현 Tonghyun Yu

Graphic Design
어디어프렌드 ADearFriend

Publisher
에이라운지 A-Lounge

Printing
퍼스트 경일 First Kyungil

ISBN
979-11-983159-2-2



ISBN

979

11

983159

2

2